



“미래의 방향 제시하는 지성의 등대돼야”

모교 신임 吳然天총장 취임

지난 8월 2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제25대 吳然天총장 취임식이 열렸다.

신임 吳然天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창조적이고 가치 있는 지식을 생산하는 나라가 새로운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혼미한 사회의 중심을 잡아주고, 불확실한 미래의 어둠에 빛을 던져 줄 수 있는 유일한 등불이 대학”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학은 사회보다 더 먼 미래를 내다보며 방향을 제시하는 지성의 등대”라며 “이제 서울대는 ‘민족정신에 뿌리를 두고 첨단 지식을 향도하는, 학문적 가치창조의 세계적 리더’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吳총장은 “서울대가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함께 나누는 진지한 인간애를 얼마나 발휘했는지, 외국의 연구성과를 수입해 전달하기에 바쁘지는 않았는지, 혹은 학교의 명성에 안주하는 예비 기득권층을 양산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며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 연연할 것이 아니라 탁월한 졸업생을 배출하는 데 힘을 쏟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심성을 갖춘 바른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사 요지·관련기사 3면>

지난 7월 20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임 吳然天총장은 경기도 졸업 후 1970년 모교 정치학과에 입학했으며 美뉴욕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1983년 모교에 부임해 행정대학원장, 특별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조세협회장,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이사장, 한국공공경제학회장, 세계은행 공공기업 담당 자문관과 기획예산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장, 한국공기업학회장 등을 거쳐 현재 바이오신약장기사업단 이사장,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2005년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관악출주

모교 제25대 吳然天총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지난 7월 20일부터 집무를 시작한 신임 吳총장은 새로운 서울대의 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학문적 가치 창조(Academic Value Creation)의 실현’을 제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고른 발전을 지원하고, 최첨단 연구와 교육의 조화를 꾀하겠다

위)에 올랐다.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석학 평판도 조사에서는 25위, SCI 논문 수에서는 20위를 차지하는 등 최근 수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오는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진입하겠다는 전임 李長茂총장의 야심찬 ‘VISION2025’ 선포를 계기로 모교는 이미 발전의 고속 궤도에 올랐다. 발전기금도 금년 7월까지의 당초 모금 목표 3천억원을 5백억원 이상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吳然天총장 시대’의 출범을 맞아 두 가지의 소망을 말하고 싶다. 하나는 ‘창업 못지 않게 守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늘 간직하

‘吳然天 서울대호’ 쾌속 향해 기대한다

고 다짐했다. 또 훌륭한 학문적 소양을 지닌 서울대 인재들을 사회와 국가, 세계에 기여하는 섬김과 나눔의 인재로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와 함께 전지구적 경쟁의 심화는 필연적으로 교육과 연구의 중요성을 다 함께 드높이고 있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도 문명적 전환기를 맞아 그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한 가운데서 글로벌 경쟁을 지향하는 서울대가 ‘학문적 가치 창조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모교는 영국 더 타임스의 2009년 세계대학 평가에서 47위(2004년 1백18위, 2006년 63

시기 바란다. 새 총장으로서 전임 총장들과는 차별화된 정책과 시책을 펼 필요는 있다. 하지만 큰 비전의 방향이 맞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더욱 매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다른 하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인 화법, 국제화 체제 강화, 연구의 수월성 확보, 첨단 및 융합분야 육성, 한국학 진흥 및 세계화 등 당면 현안에 대해 능동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주시기 바란다. 吳총장이 경선과정에서 밝힌 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데 있어, 구성원간 ‘합의의 원칙’, 모교 발전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발전의 원칙’을 충실히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 吳총장의 취임으로 서울대호가 더욱 쾌속 향해하기를 기대한다. (李慶衡는설위원)

제6회 서울대 동문 골프대회

9월 14일(화) 12시 30분 스카이72골프클럽

모교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고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제6회 총동창회장배 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각 단과대학(원) 및 특별과정·직능지부 동창회와 지방·해외지부 동창회가 모두 함께 하는 행사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10년 9월 14일(화) 12시 30분
- ◆장 소 : 인천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골프클럽 하늘코스(전화 : 1544-7002)
- ◆참가대상 : 단과대학(원)·특별과정 동창회, 직능지부·지방지부·해외지부 동창회별로 대표팀(3명 1팀) 또는 개인전 참가 가능 (접수는 해당 동창회에 문의)
- ◆진 행 : 샷경방식
- ◆시상내역 : 단체전 및 개인전(여성부 별도), 이글, 행운, 깜짝상 등 시상

※ 대회 일정이나 운영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총동창회 · 서울대학교

느리나무광장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이란 게 있다. 세상 사람들은 여섯 다리만 건너면 모두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개인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儒敎문화권인 한국에서는 그 절반인 ‘세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람’일 게다.

이렇게 얹히고 설킨 한국인의 인간관계가 종종 문제를 일으킨다. 쇼트트랙 선수들이 특정 학교 출신끼리 상을 나눠먹다 물의를 빚었다.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히딩크도 선수 선발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일이 있다. 어디 스포츠계뿐이겠는가? 겨우 세 다리만 건너면 모두 아는 사람인데도 같은 고향, 같은 姓씨,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패거리를 지어서야 나라꼴이 어찌되겠는가?

이런 인연으로 아는 사람이라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도와줄 수 있다. 길을 가다 만난 남이라도 그런 때라면 돕는 것이 人之常情이다. 하지만 같은 패거

리에 속한다고 규칙을 어기고 특혜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영포목우회’ 사건을 보면 가슴이 찡찡한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 정도인가? 내가 속한 집단은 그런 일이 없을까? 牧民官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국민의 표를 얻어 정권을 쥔 사람들이 어떻게 고향사람끼리 권력의 단맛을 나눠먹을 생각을 했을까? 어디 그뿐인가? ‘고·소·영’(고대, 소망교회, 영남)이란 말은 유행어가

‘고·소·영’有感

金 鎮 國
중앙일보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된 지 오래다.

더 큰 걱정은 이런 일로 서울대총동창회마저 忌避하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관악언론인회 일로 연락하다 보면 “저는 그런 모임에 관심이 없어요. 서울대 출신마저 패거리를 지으면 어쩔니까?”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총동창회 일을 몇 년간 도와온 필자로서는 그런 걱정은 불들어 매놓으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당연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서울대인들이 또 하나의 ‘고·소·영’이 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서울대총동창회는 그런 패거리를 지향해오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지난 6월 관악언론인회 여기자모임에서 文昌克회장은 우리는 폐거리로 몰려다니는 이리떼와 달리 혼자서 당당히 들관을 누비는 맹수들이라고 비유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이는 건 맹수끼리 서로 싸우는 일은 피하지는 것이라고 했다. 좋은 기자, 기자로서의 올바른 길에 대해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후학들에게 도움을 주고, 동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함께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도 ‘고·소·영’식의 淺薄한 패거리 문화를 輕蔑하는 동문들이 더 많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관악시단

동심의 세계로

李 柱 漢(역사교육53-57)
시인

여울은 소리 찻질
소리 담은 향아리

온갖 산새는
나무 사이사이를 줄타기하다
흘리는 소리 있어 물살 위를 맴돌고
어데서 흘러왔나 새빨간 단풍잎

나는 수도자의 마음인가 합장을 한다
무딘 생각을 여울에 털다가
가만히 눈을 뜨면 뚝단배 하나

그 단풍잎은 은하수의 하늘을 나는
잔잔한 꿈길이 되어

내 동심을 매단 채로
도란도란 흘러서 간다.

동문칼럼

하노이공항을 나서자마자 훅하는 열기가 감쌌다. 7월 베트남의 더위를 실감하면서도 마음은 “이제 드디어 글로벌 네트워크의 첫 열매를 맺는구나”하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울대는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학생들이 들어오게 돼 외국인 학생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그래서 학생처에서는 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도록 2007년 외국인학생회를 창설해 공식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런데 아시아 출신 외국인 학생들과 가깝게 교류를 하다 보니 이들이 졸업한 후에도 서울대 동문으로 서로 연락하며 도움을 주는 시기가 이르렀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張 在 盛
(불문75-82)
모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前학생처장

사와 참사들이 참석해 조출한 동창회를 가졌다.

참석한 베트남동문들은 주로 정부 관료나 대학교수들로, 앞으로 베트남을 이끌어 갈 인재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도 이런 모임을 만들고 싶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미뤄왔는데 이번에 모교에서 동창회를 주선해주니 너무나 고맙다고 필자의 손을 꼭 잡았다.

필자는 손으로 전해지는 따스한 정을 느끼며 그들을 안아주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도

진정한 서울대 동문으로 자부심을 갖고 서울대를 넘어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친선과 우의를 다지는 첨병의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여러분의 모교도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노라고 격려해주었다. 또한 베트남 외교부의 한국담당서기관이 동문으로 참석해 한국대사관의 공사가 “진작 알았더라면 일이 훨씬 수월했을 텐데”하며 좋아해서 지켜보는 필자도 무척 흐뭇했다.

하노이에서 결성식을 마치고 호치민으로 출발했다. 호치민에는 동포 8만여 명과 우

“베트남동창회를 결성하고...”

그래서 2009년 초부터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졸업한 외국인 학생들을 조사하기 시작해 6개월에 걸쳐서 7백여 명의 졸업생 이메일 주소를 파악하고 국가별로 분류해, 가장 진척이 빠른 베트남에서 첫 동창회를 결성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은 하노이와 호치민에 동문들이 주로 거주해서 당시 학생처장인 필자와 직원이 이 두 도시를 각각 방문해 동창회를 결성하게 됐다.

첫 방문지인 하노이에서 베트남동문 29명과 베트남 외교부와 한국대사관에서 온 공

리 기업이 무려 1천4백여 개나 있어서 한국어가 무척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참석한 14명의 베트남동문 중에는 호치민대 한국어과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몇몇 있었다. 결성식을 끝내고 호치민총영사와 동창회장이 베트남동문에게 이제부터 우리는 한 동문이라고 말했고 모두가 악수하며 동문의 정을 나누었다.

필자는 서울대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 조국과 인류를 사랑하는 동문으로 나아가자고 말하면서 베트남에서의 일정을 마무리지었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인쇄인 朴 薦 壽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 전화 (02) 702-2233 팩스 (02) 886-2218
•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林炯斗, 金鎮國,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李啓聖,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李先敏,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金永燮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金南柱, 邊榮顯 광고부장 金千鶴



모교 제25대 총장 취임식에 각계인사 4백여 명이 참석해 신임 吳然天총장에게 축하인사를 전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吳然天총장께 거는 기대가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모교 25대 吳然天총장 새 진영 출범

吳총장 “대학이 바로 희망” 강조 林회장 “세계 지성의 전당” 당부

지난 8월 2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본회 金在淳 명예회장, 林光洙 회장, 孫一根 상임부회장, 洪性大 부회장을 비롯해 전임 權舜赫·李賢宰·朴奉植·趙完圭·李壽成·鮮于仲皓·李長茂 총장, 가톨릭대 朴永植 총장, 고려대 李基秀 총장, 공주대 徐萬哲 총장, 서울교대 宋光鏞 총장, 연세대 金漢中 총장을 비롯한 타 대학 총장, 모교 보직교수, 재학생 등 교내외 인사 4백여 명이 참석해 吳然天 총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전임 權舜赫 총장은 축사를 통해 “吳총장은 첨단을 달리는 이상적인 인물로 풍요로운 경험을 가진 이론과 실천의 전문가”라고 소개한 뒤 “확고한 리더십에 요구되는 비전(Vision)·모험(Venture)·생명력(Vitality)·승리(Victory)의 4V 정신으로 서울대가 세계 최고

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 회장은 축사에서 “행정학의 권위자이시면서 확고한 학문적 소신과 후덕한 인품을 갖추신 총장께서 서울대를 세계 최상위권 명문대로 도약할 수 있는 완전한 발판을 마련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총장님의 준비된 계획과 굳은 실천 의지는 이를 성공적으로 성취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모교가 명실상부한 세계 초일류 지성의 전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저 또한 모교를 한없이 사랑하는 영원한 동문의 한사람으로서, 언제까지나 모교의 발전을 위해 정성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축사 요지 참조〉

李長茂총장 이임식

“창조적 ‘서울대다움’ 구현하길”

지난 7월 19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4년 임기를 마친 李長茂 총장 이임식이 거행됐다. 李長茂 총장은 이임사에서 “그동안 서울대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힘써 노력해준 학교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까지 모든 영역에서 비약적 성장을 이뤘고, 앞으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 개개인이 보다 긴 호흡과 여유, 자신감과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한 단계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융합을 통해 상상력을 뛰어넘는 도전에 더욱 능동적으로 나서고, 바깥세상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아감으로써 창조적으로 ‘서울대다움’을 구현해 달라”고 당부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又日新的 발전을 이뤄온 것은 다른 무엇에 비할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이었다”고 재임기간을



회고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韓松(치의학68-73 강릉원주대학교 총장)회장이 李長茂 총장에게 행운의 열쇠를 전달했다.

이날 李長茂 총장은 지난 4년의 임기동안 소통과 융합 정신의 철학이 담긴 수필집 ‘벽을 넘는다’를 참석자 전원에게 선물했다. 〈榮〉

吳然天총장 취임사 <요지>

대한민국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飛翔하느냐 아니면 변방으로 밀려나느냐 하는 이 절체절명의 역사적 갈림길에서, 서울대학교가 세계적 대학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요구는 이제 지엄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 연연할 것이 아니라, 탁월한 졸업생을 배출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는 잠재력 있는 인재에게 학습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한껏 자신을 낮추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심성을 갖춘 바른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명실상부한 세계적 대학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계량화된 외형과 수치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의 잣대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보다 엄격한 내면의 기준에 입각한 학문적 양심을 바로 세우야 합니다. 외국대학을 따라가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적 주체성으로 아시아의 가치와 한국의 길이라는 새로운 답을 세계에 제시해야 합니다.

대학은 학문적 가치를 창조하는 공장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창의적인 도전을 하는 곳입니다. 끊임없는 창조적 진화가 이뤄지는 마당입니다. 과도한 시장주의와 편협한 명분론을 아울러 경계하며 대학 본연의 가치에 충실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세계적 대학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은 사회보다 더 먼 미래를 내다보며 방향을 제시하는 지성의 등대가 돼야 합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에 도전하고 한계를 깨는 지식의 프론티어가 돼야 합니다. 이제 서울대학교는 ‘민족정신에 뿌리를 두고 첨단의 지식을 향도하는, 학문적 가치 창조의 세계적 리더’가 될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서울대학교는 제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철 모르던 소년이 이 곳에서 지식을 얻고 삶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제 인생과 동의어인 모교를 위해 모든 땀과 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대학의 생명인 품위와 자율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고자 합니다. 활짝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경청의 리더십’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제 머지 않은 장래에 세계가 서울대로 옵니다. 따뜻한 인간애와 훌륭한 지적 역량을 지닌 우리 졸업생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것입니다. 관악과 연건이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의 중심지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서울대학교의 모습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읍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민족과 역사를 위해 헌신합시다. 그리고 당당히 이야기합시다. 대한민국의 雄飛를 가능하게 할 지성의 힘이 여기 서울대학교에 있다고 믿습니다. 대학이 바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林光洙동창회장 축사 <요지>

잘 아시다시피 모교는 개교 이후 극심했던 혼란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문의 정도를 굳건히 지키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함으로써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국 제1의 국민의 대학, 민족의 대학으로 성장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세계 초일류 명문대학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역대 총장님, 교직원과 재학생 그리고 동문들께서 그동안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재를 육성해 달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시기에 취임하시는 吳然天 총장님! 행정학의 권위자이시면서 확고한 학문적 소신과 후덕한 인품을 갖추신 총장님께서 서울대학교를 세계 최상위권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완전한 발판을 마련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吳총장님께서 총장 후보로 출마하실 때 서울대를 세계를 선도하고 국민이 사랑하는 대학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시의적절한 각오와 의지를 밝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이란 우수한 지망생들이 많이 모여들고 학생들의 푸른 꿈을 키워주는 대학, 세계적인 석학들과 유능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대학, 모교와 동문들이 국민 모두의 사랑을 받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무한 경쟁사회에서 이런 좋은 대학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총장님의 준비된 계획과 굳은 실천 의지는 이를 성공적으로 성취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는 말이 있듯이, 서울대는 진정 이 나라를 이끄는 인재들의 寶庫요, 나아가 조국의 무한한 자긍심의 원천입니다.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3만 동문들의 단합과 참여, 헌신을 외쳐온 우리들 서울대인으로서도 이러한 吳然天 총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대단히 크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무쪼록 총장님께서 행정학 분야의 해박한 이론을 바탕으로 학문적 자유와 창의적, 실천적 지성이 넘치는 대학을 만들어 우리 모교가 명실상부한 세계 초일류 지성의 전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새 총장님의 취임을 새 출발의 계기로 삼아 모교의 발전, 조국의 발전에 힘을 모아갑시다.

저 또한 모교를 한없이 사랑하는 영원한 서울대 동문의 한사람으로서, 언제까지나 모교의 발전을 위해 정성을 보낼 것입니다. 吳총장님께서도 가지고 계신 모든 역량과 수완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모교와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약으로 살펴본 吳然天총장의 모교 발전 플랜

모교 제25대 吳然天(정치70-74)총장이 보직교수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7월 20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본보는 신임 총장 인터뷰에 앞서 총장후보로 나서면서 내세웠던 공약을 정리해서 소개한다.

세계를 선도하고 국민이 사랑하는 대학으로

吳然天총장은 후보시절 선거공약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대, 국민이 사랑하는 서울대’라는 비전 아래 모교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S. T. A. R. (Superior Teaching, Advanced Research)프로젝트 10’을 제시했다. 교육, 연구, 업적평가, 복지, 행정, 캠퍼스, 사회봉사 등 10개 중점 과제(표 참조)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정 확충 통한 교육·연구 투자

吳총장은 우선 기초교육 지원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대학원 교육에도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다. 모교가 세계 수준 대학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학문 후속세대를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별도의 유학 없이 모교 박사과정을 수료한 것만으로도 세계적인 학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신이 깔려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석·박사 과정의 학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SNU Young Star’ 프로그램을 도입해 장학금을 확대하고, 교수 1인당 최소 1명의 박사 후 연수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SNU Academic Value-Creation(S. A. V.) 프로그램과 Brain World(B. W.) 사업을 추진한다. S. A. V.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초연구, 한국학연구, 연구기자재 확충을 지원하며, B. W. 사업(Post BK21)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장기적 융·복합연구에 대한 지원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지원을 크게 늘린다. 임용 5년 이내 신임 교수에게 무이자 정착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안식년 요건을 1년 단축하고 안식년 연구비를 확대 지급한다. 또 우수 사립대학 수준을 목표로 법인화가 이뤄질 경우 교수 실질 연봉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매년 연구비와 국고 지원, 발전

기금의 증가율을 20% 목표로 설정해 모교 운영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비 확충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吳총장은 모교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 기업, 대학이 참여하는 관·산·학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현재 13%인 연구비 인상률을 20%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학생들을 ‘섬기는 리더’로 키우기 위한 사회봉사학점제 도입과 멘토링제도를 확대한다. 吳총장은 모교가 인성교육을 강조해야 한국 사회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모교 재학생을 국제봉사단으로 파견하는 방안, 기초소양 과목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다.

이러한 교육·연구 역량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행정 경험이 많은 吳총장에게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간 대학행정은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이를 혁신하기 위해 吳총장은 연구업적관리시스템, 학사관리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등의 사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세계 최고 수준의 E-Campus를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시스템 개선·E-Campus 구축

또 연구·기획과 교무·학사를 담당하는 복수 부총장 제도를 도입해 대학 행정을 분권화 한다. 이는 지난 보직교수 인선 때 잘 반영됐다는 평가다.

교수 업적평가 및 승진심사도 합리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교육, 연구, 임상 등 업적평가의 가중치를 교수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던 교수평가를 단과대학에 맡길 방침이다.

여성, 외국인, 교직원의 근무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출산 및 육아 휴직, 교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



아시아연구소 신축 기공식(7월 23일)

미래 실현 위한 10개 중점 과제

- 학부 교육 : 기초교육 지원체제 개편, 혁신적인 학부 교육프로그램 도입
- 대학원 교육 : ‘SNU Young Star’ 프로그램 도입해 ‘자랑스러운 서울대 박사’ 양성
- 중점연구사업 : SNU Academic Value-Creation과 Brain World 사업 추진
- 연구지원체제 : 안식년 요건 1년 단축, 안식년 연구비 확대 지원
- 업적평가 및 심사 : 업적평가 영역별(교육, 연구, 임상 등) 가중치에 대한 교수 선택권 도입
- 복지 : 임기 중 교수 실질연봉 인상, 임용 5년 이내 신임 교수의 정착 지원
- 여성·외국인·교직원 : 출산·육아 휴직, 외국인 교수 위한 International Office 신설, 학사행정 전문직 신설
- 행정 : E-Campus 실현, 단과대별 총액예산제 도입, 복수 부총장제 확대
- 캠퍼스 : 그린캠퍼스 조성 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사회봉사 : 사회봉사학점제 도입, 멘토링제도 확대

외국인 교수의 정착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로 ‘International Office’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비자업무를 포함한 출입국 지원, 배우자 취업알선 등 고충처리, 공문서 실시간 번역서비스, 외국어 가능 조교 지원 등 다양한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전문직 서비스 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외국인 교수에게 적합한 승진, 정년 심사기준을 책정하고 외국 우수대학에 걸맞는 유인제도의 도입을 통해 석학들이 모교로 올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할 계획이다.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학사행정 전문직을 신설하고,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확충할 예정이다. 그밖에 교직원 장기임대 주거단지 조성, 서울대병원 교직원 의료비감

면 대폭 확대 및 교직원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편 법인화와 관련해 吳총장은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기초한 합의를 도출하고, 기초와 응용학문, 단과대학간의 균형발전, 사회적 책무성의 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법인화가 모교의 명백한 개선과 발전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화를 통해 모교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자원배분에 주력하고, 정부의 통제가 아닌 창의와 혁신이 꽃피는 모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을 기초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서울대를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제7회 동문 바둑대회

오로삼매경에 빠져 흑백의 묘미 만끽

단체전 문리대·개인전 洪成允동문 우승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7월 4일 모교 관악캠퍼스 농업생명과학대학 제3식당에서 바둑 애호가들의 큰 잔치인 제7회 동문 바둑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동문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총동창회와 모교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1950년대 학번의 대선배부터 2000년대 학번의 재학생까지 3백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바둑으로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연출

했다.

이날 대회에는 본회 林光洙회장을 비롯해 孫一根상임부회장, 朴熙伯·孔大植·姜寅求부회장, 상과대학 洪龍濤동창회장, 모교 金夏奭특임부총장, 崔松和심관위원장, 모교 바둑부 李昶煥지도교수, 徐能旭(프로9단)·黃 焰(프로4단)·吳周星(물리07입·프로2단) 심판위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단체전 우승 문리대팀 : 채준영·安成文·申秉湜동문, 林光洙회장, 朴治文·姜螢根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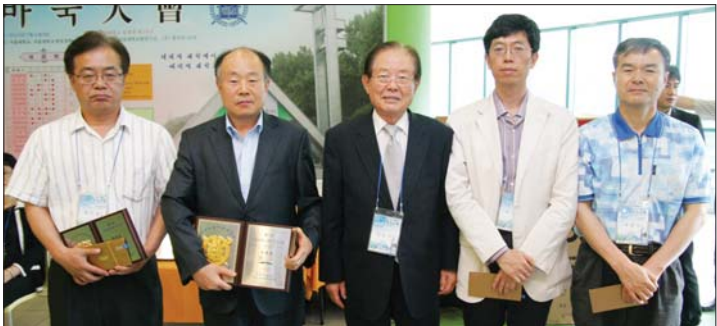
본회 林光洙회장은 개회사에서 “바둑은 다른 취미나 오락에 비해 집중력과 두뇌개발에 좋은 스포츠이며, 예의를 갖춰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삶의 오묘한 진리가 담겨 있는 전통놀이”라고 소개하며 “바둑에서 새로운 묘수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 것으로만 고집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를 공유하는 나눔의 문화가 있어 훌륭한 후배들이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교 金夏奭특임부총장은 축사에서 “바둑은 두면서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사람을 알아가고 서로 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며 “바둑을 통해 지혜를 깨우고 말로 하는 대화보다 더 깊은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이 서로 우애를 다지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운영위원장인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은 대회 경과를 보고하면서 “오락에 그치지 않고 오늘을 사는 현대인의 병서와 처세지침서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경국의 경륜서이기도 하다”며 “바둑의 승패에 연연하지 말고, 그야말로 수담을 나누는 마음으로 서로 우의를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후배간 열띤 명승부

林光洙회장의 대회 시작을 알리는 징 소리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크게 나뉘 변형 스위스리그 방식으로 진행됐다. 2백여 명이 참가한 개인전은 기력에 따라 최강조·



개인전 최강조 수상자 : 尹錫喆·洪成允동문, 孫一根상임부회장, 李康云·具宗書동문

A·B·C·D·E 6개조로 편성됐으며, 단체전은 17개팀(5명 1팀)이 출전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이날 단체전 우승은 모교 바둑부팀과 박빙의 승부 끝에 3대 2로 이긴 문리대팀이 차지했다. 모교 바둑부팀은 약대팀과 같은 3승1패였으나 승점에서 뒤져 공동 3위에 머물렀다.

문리대팀은 바둑언론계의 대부로 불리는 중앙일보 朴治文(국문 68-79)바둑전문기자, SBS 申秉湜(미학73-78)논설위원, 安成文(정치83-87)前바둑TV 국장 등 바둑계 종사 경력에 있는 막강 팀원으로 구성됐으며 2008년에도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날 문리대팀은 林光洙회장으로부터 우승기를 전달받았으며 상패와 함께 1백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개인전 최강조 결승전은 경기시간을 훌쩍 넘기는 접전을 펼친 끝에 洪成允(서양사학73-78 우리은행 부문동지점장)동문이 尹錫喆(화학80-84 KR코폴리머 영업팀장)동문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최강조는 아마 5단 이상의 동문들이 출전했다.

그밖에 개인전에서는 A조(2~4단) 權赫俊(기계항공03-07)동

문, B조(2급~1단) 尹錫泰(화학교육73-77)동문, C조(3~4급) 姜瑛振(국문62-65)동문, D조(4~5급) 金康造(약학64-68)동문, E조(6급 이하) 金明淡(회화58-62)동문이 우승을 차지했다.

심판위원들 판정에 진땀

이번 대회는 지난해와 달리 심판 위원들이 분주했다. 정해진 시간에 승부가 나지 않는 경기가 여느 대회보다 많아 대회를 돌아다니며 공정한 판정을 내리느라 진땀을 흘렸다. 徐能旭·黃 焰·吳周星심판위원은 판정 외에도 孫一根경기운영위원장, 崔松和심판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동문들과 지도대국을 펼치며 수담을 나눴다.

이날 林光洙회장은 모교 바둑부팀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재학생들의 발전을 기원했으며 참가자들은 본회에서 준비한 수건세트와 경품으로 노트북, 진공정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음식물건조처리기, USB메모리 등 푸짐한 상품을 받았다. 특히 경품추첨에서 任聖彬(토목공학63-68)동문은 대상(노트북)에 당첨되는 행운을 누렸다. (榮)



지난 7월 4일 개최된 제7회 동문 바둑대회는 출전 선수와 관계자 등 3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각 부문별 수상자

■단체전

△우승 : 문리대팀 朴治文(국문68-79)·申秉湜(미학73-78)·鄭載興(사회79-85)·姜螢根(불문82-87)·安成文(정치83-87)·채준영(국문87입)동문 △준우승 : 약대팀 林祥雄(약학60-64)·李鎭洙(약학62-66)·尹光洙(제약69-73)·鄭文琪(약학69-77)·金相喆(제약73-77)·郭炯俊(약학06-10)동문 △공동 3위 : 사대팀 崔安基(지리교육70-79)·李相奎(불어교육75-82)·柳忠均(수학교육78-82)·鄭原採(지구과학교육80-84)·金鳳來(화학교육85-89)동문, 모교 바둑부팀 金형균(컴퓨터공학01입)·이광렬(의학01입)·오경환(경영06입)·윤석환(의학07입)·노시정(자유전공09입)군

■개인전

▲최강조 △우승 : 洪成允(서양사학73-78)동문 △준우승 :

尹錫喆(화학80-84)동문 △공동 3위 : 具宗書(공업화학70-78)·李康云(치의학88-92)동문 ▲A조 △우승 : 權赫俊(기계항공03-07)동문 △준우승 : 朴永根(경영79-83)동문 △공동 3위 : 金吉重(경제62-66)·朴元根(경영72-79)동문 ▲B조 △우승 : 尹錫泰(화학교육73-77)동문 △준우승 : 金京植(수학교육82-03)동문 △공동 3위 : 朴大鎬(국어교육74-78)동문, 천원장(경제05입)군 ▲C조 △우승 : 姜瑛振(국문62-65)동문 △준우승 : 李泰雨(생물교육60-64)동문 △공동 3위 : 李泰鉉(상학66-70)·金昶謹(중문83-93)동문 ▲D조 △우승 : 金康造(약학64-68)동문 △준우승 : 李一榮(치의학66-72)동문 △공동 3위 : 趙장식(응용생물화학00-08)·徐凡浚(지구환경시스템공학01-05)동문 ▲E조 △우승 : 金明淡(회화58-62)동문 △준우승 : 金己輝(상학66-70)동문 △공동 3위 : 柳曙夏(섬유공학56-62)동문, 문승기(법학06입)군

베트남 외국인동창회 출범 모교 출신 현지인 43명 모여



베트남에서 첫 외국인동창회가 결성됐다. 지난 7월 3일과 4일 베트남 출신 모교 졸업생 43명과 모교 張在盛 前학생처장, 외국인지원센터 李相億팀장 등이 베트남 하노이시 대우호텔과 호치민시 뉴월드호텔에서 베트남동창회를 창립했다.

초대 회장으로 하노이개방대 생명공학과 응웬 반 다오(농생대 박사과정 02졸)교수, 호치민 지회장으로 티엔장대 식품공학과 트 쾡 트리(농생대 박사과정 08졸)교수를 선출했다.

李相億팀장은 “모교와 동문들의 발전뿐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공동 번영을 다짐하는 등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베트남 동문들은 대학, 정부기관, 다국적 기업 등 베트남의 주요 분야에 진출해 있다. 모교는 리더 층에 속하는 이들의 활

동에 큰 기대를 걸고 2008년 말부터 국가별·지역별 외국인동창회 결성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외국인 졸업생 7백여 명의 신상 명세와 연락처가 담긴 명부를 완성했으며 베트남, 몽골, 중국 등 비교적 졸업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동창회 결성을 주선해 왔다. 현재 모교에서 공부하는 외국계 학생들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영어권 학생들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순이며 베트남은 6대 메이저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張在盛 前학생처장은 “베트남동창회의 창립은 서울대를 졸업한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자국에서 동창회를 결성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 곳을 시작으로 몽골, 중국 등지에서도 동창회가 결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가주지부동창회

동문합창단 공연 성황

남가주지부동창회(회장 金殷宗)는 지난 7월 9일 LA 다운타운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동문합창단 제5회 정기공연’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공연에는 동문 및 가족들로 구성된 1백여 명의 합창단원과 40여 명의 오케스트라가 ‘강 건너 봄이 오듯’, ‘진달래 꽃’

등의 가곡부터 엘비스 프레슬리의 히트곡, 드라마 ‘천국의 계단’ 주제곡 ‘아메리리아’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곡을 선사했다.

특히 베토벤 교향곡 9번 4악장 ‘환희의 송가’를 1백여 명의 합창단원과 소프라노 郭賢珠(성악84-88)동문, 베이스 金武燮(성악97-01)동문, 테너 김일두(성악98-03)동문 등이 열창해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공연의 수익금은 아이티 구호성금과 국제봉사단체 월드비전 후원금으로 쓰일 계획이다.

부이사장에 金承豪(공업교육71-75)동문을 위촉했다.

북가주지부동창회

申秀貞동문 초청 음악회

북가주지부동창회(회장 洪性濟)는 8월 28일 샌프란시스코 Herbst Theater에서 제4회 동문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모교 음대 학장을 역임한 피아니스트 申秀貞(기악59-63)동문을 초청해 북가주 동문 음악인 모임인 ‘베리타스 앙상블’ 회원들과 함께 공간을 넘어서 하모니를 연출할 예정이다. <南>

모교 개교 원년 바로 잡기



韓昌燮(정치57-62)미주한국통신사 사장

모교 개교 원년 찾기와 관련해 뉴욕지부동창회장을 역임한 韓昌燮동문이 보내온 칼럼을 참고로 게재한다.

지난 6월 12~13일에 시카고에서 열린 서울대 미주동창회 제19차 평의원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하는 중에 뉴욕을 방문한 林光洙총동창회장이 필자에게 준 3백58페이지의 책자 ‘正統과 正體性 - 서울대학교 開校 元年, 왜 바로 세워야 하는가’를 읽고 동문의 한 사람으로 서울대의 역사에 관해 많은 것을 알게 됐다.

사실 작년과 재작년에 동창회보에 몇 분의 동문들이 기고한 서울대 개교 원년에 관한 글을 보았으나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솔직히 말해서 6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똥단지 같이 별안간 서울대의 태어난 해가 1946년이 아니고 이보다 50여 년 전인 1895년이라는 이론과 어떤 분은 고구려시대의 태학(서기 372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필자에게는 그러한 논리와 주장이 다소 황당무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어떤 조직체나 기관의 연역을 따지는 데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 법적인 면보다는 사실적인 면이 우선돼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서울대라는 이름의 고등교육기관이 법적으로는 1946년에 설립됐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이미 기존의 교육기관들이 통합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뿌리를 서울대 창립 구성원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타당하고 당연하다고 필자는 본다. 1991년부터 시상해 온 역대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자 명단을 보면 서울대가 설립되기 전에 존재해 서울대 창립의 구성원이 된 각종 학교 졸업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바로 현재의 서울대 개교 원년이 1946년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행동으로 입증한 것이다.

2~3개의 기존 교육기관들이 통합해 서울대가 설립된 것이 아니고 1924년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을 포함한 10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창설 구성원으로 되는 바람에 개교 원년을 밝히는 작업이 완전히 방치, 망각되고 서울대의 법적인 개교 원년인 1946년이 통용돼 고정된 것이 아닌가 필자는 짐작한다. 李泰鎮명예교수가 작성한 개교 원년 재조정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서울대가 지난 60여 년간 지켜온 개교기념일인 10월 15일이 어떻게 해서 정해졌는지조차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대학교(University)라는 자격을 받으려면 학사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이 돼야 하는데 서울대를 구성한 대학과 전문학교 그리고 사범학교들이 모두가 학사와 석사학위를 수여했는지도 개교 원년을 결정하는 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버드대의 경우 1636년을 개교 원년으로 하고 있지만 대학교(University)로 인가가 난 해는 1780년이기 때문에 펜실베이니아대가 이보다 1년 전인 1779년에 대학교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으로 중국의 남경학교(기원전 258년)가 있지만 대학교(University)라는 자격과 이름을 얻게 된 것은 1888년이다. 그전에는 남경학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았다.

1693년에 설립된 윌리엄 앤 매리 대학(College of William and Mary)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대학교인데 아직도 University라고 하지 않고 College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대학교의 경우 거의 전부가 개교 원년으로 법적인 개교 원년을 사용하지 않고 실제적인 그 학교의 개교 원년을 사용하고 있다. 즉 유치원으로 시작됐건 또는 성직자 양성소로 시작됐건 또는 학교명이 바뀌었어도 학교명과는 관계없이 처음 설립된 해를 개교 원년으로 삼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다. 예일대는 1701년에 Collegiate School로 개교했으나 수년 후에 예일대가 됐고, 프린스턴대도 처음에는 College of New Jersey로 설립됐고, 컬럼비아대도 1754년에 King's College로 창설돼 30년 후인 1784년에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됐다. 미국에서 법적으로는 가장 먼저 대학교로 인가를 받은 펜실베이니아대(University of Pennsylvania)도 1740년부터 1755년까지는 Academy of Philadelphia로 존재했다. 브라운대도 1764년에 College of Rhode Island로 개교했다. 이처럼 미국의 유명한 모든 대학교들이 처음에 내린 뿌리에 개교 원년을 두고 있다.

미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인 멕시코국립대는 스페인이 멕시코를 정복한 후 1551년에 설립했으나 멕시코밀란 황제가 1866년에 이 대학교를 폐교했다. 그러나 멕시코국립대는 1910년에 다시 개교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령에서 퇴임한 루즈벨트 前대통령을 비롯한 수명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멕시코국립대도 개교 원년이 1910년이 아니고 1551년으로 삼고 있다.

서울대가 64년이 지난 이제 와서 개교 원년을 바꾼다는 것이 외부 사람들에게는 좀 우습게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의 당연한 역사 바로 잡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뿌리 찾기를 무시하고 방치한 우를 범한 것 보다 몇 배나 더 큰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인문대동창회

정기총회서 朴孟浩회장 재선출

인문대학동창회(회장 朴孟浩)는 지난 7월 14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열고 朴孟浩(불문52-57)회장을 재선출했다.

차회장은 “동창회는 참여가 기본”이라고 역설하며 “너와 나만의 동창회가 아닌 우리들의 동창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어 “광장이 만들어지면 발자국이 많아지고 발자국이 많아지면 길이 만들어진다”며 “우리는 인문대동창회라는 광장을 만들었으니 트위터, 카페, 홈페이지, 회보, 문학·역사·철학기행이든지 간에 더 큰

야단법석을 만들고 크게 어우르는 난장판을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는 큰길을 만들자”고 말했다.

도서출판 민음사 대표인 차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인문학의 향취가 물씬 풍기는 ‘문사절’이라는 회보를 3회 발행했고, 2억원을 출연해 모교의 인문강좌 프로그램을 후원했다. 또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영문학과 등 학과동창회의 부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총회에는 崔泳美(서양사학 80-85)시인과 재즈가수 姜恩鈴(농가정88-92)동문이 참석해 시



와 노래로 행사 분위기를 돋웠다. 입학 30주년을 기념해 모교를 방문한 崔동문은 지난 80년대 대학 시절을 생각하며 ‘2008년 6월 서울’, ‘광장을 지나며’ 등의 시를 낭송했다. 노래패 ‘메아리’ 출신의 姜동문은 ‘사노라면’, ‘Qui A Tue Grand-maman’ 등의 노래를 선사했다.

장학빌딩 건립기금

1억1천만원 쾌척

제주한라대 金炳贊총장



지난 7월 6일 제주한라대학 金炳贊(의학53-60)총장(사진)이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1억1천만원을 쾌척했다. 金총장은 제주한라병원장,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제주병원협회장, 제주지부동창회 초대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국대학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19일 뉴욕에서 공인회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姜에드워드(姜忠武 독어교육60-65)동문이 1천23만여 원을 출연했다. 또 李道千(임학55-60)동문, 金秀光(금속공학59-63)동문, 徐範珠(불문59-63)동문이 각각 1천만원을 보내왔다.

온타리오지부 韓成澤회장
공사현장서 3백만원 기증



또 지난 7월 21일 캐나다 온타리오지부동창회 韓成澤(약학58-62)회장(사진 左)이 서울 마포구 본회 장학빌딩 현장을 둘러보고 즉석에서 본회 林光洙회장에게 건립기금 3백만원을 전달했다.

韓회장은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서 제약회사 ABR(Active Bio Research)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만 평

李元馥



미대 58동기회

26회 전시회 개최

미대 58학번 동기회(회장 鄭相元)는 지난 7월 7~13일 서울 관훈동 모로갤러리에서 제26회 ‘58-2010展’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金鳳九(조소 58-63)·金 鉉(회화58-63)·朴淑姬(응용미술58-62)·朴香淑(응용미술58-62)·白顯鉦(조소58-65)·夫賢一(회화58-64)·成己婉(회화58-62)·成耆點(회화58-62)·俞英濬(조소58-62)·俞亨吉(회화58-64)·俞 煌(회화58-64)·李秉錫(회화58-62)·李在漢(회화58-65)·鄭相元(회화58-64)·韓英玉(회화58-62)·黃英姬(회화58-62)동문 등이 조각 및 회화 작품 20여 점을 출품했다.

鄭相元회장은 “황혼의 태양이 가장 크고 붉은 열기를 오래도록 내뿜는다”며 58전시회는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58학번 전시회는 1975년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미대 유일의 동기 전시회다.

의대동창회

함춘의학상 후보자 추천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炫)는 오는 9월 30일까지 함춘의학상 및 장기려의도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함춘의학상은 학술과 연구업적이 탁월한 동문 4명에게 수여되며 이 가운데 올해 신설된 함춘동아 의학상 수상자에게는 3천만원,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1천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참 의사의 도리를 널리 일깨운 聖山 張起呂박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장기려의도상’은 순금 메달과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4일(화)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함춘송년의 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762-9465〉

“6·25때 헤어진 어머니가 동문이였다”

金明子동문 본회 홈페이지 통해 뒤늦게 확인

지난 6월 18일 모교 학사과 앞으로 미국에 사는 한 동문으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제목은 ‘어머니의 졸업증명서’. 보낸 이는 미국 하틀랜드동창회장을 지낸 金明子(식물62-66)동문이였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오늘(6월 18일) 오후 1시경 정성껏 보내주신 어머니의 졸업증명서가 담긴 봉투를 받았습니다. 졸업증명서 2통, 학적부 사본 1부, 졸업대장 사본 1부. 그 기록을 찾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1930년 경성사범학교 여자연습과를

신했었죠. 형제들로부터 어머니가 1951년 폭격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40년간 그리워했던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고 상실감에 젖어 살다가 올해 초 어머니가 경성사범을 졸업해 학교 선생님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았기에 경성



어머니 徐誠善동문

사범 시절의 어머니 기록물이라도 갖고 싶다는 열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모교에 연락을 하게됐죠. 오래된 기록물을 찾아 애써주신 金夏奭前특임부총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사리원으로 피신했

모교서 80년된 증명서 찾아

졸업한 어머니 徐誠善동문의 기록물을 찾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편지였다. 金동문이 어머니의 기록을 찾고 싶어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金동문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모교 동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9세 때 6·25전쟁이 터져 어머니와 헤어진 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먼 친척으로부터 어머니가 경성사범을 졸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회 홈페이지(www.snua.or.kr) ‘동문 검색’ 서비스를 통해 모교 출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B30001400000 徐誠善 경성사범학교 여자연습과 1930년’ 검색 결과 화면을 보며 金동문은 묘한 흥분과 기쁨에 사로잡혔다. ‘졸업장 카피를 구할 수 있을까’ 무언가 기쁨이 될만한 것을 가지고 싶다는 단순한 염원이었다.

“지난 1990년 어머니와 함께 헤어졌던 형제들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4명 모두 북한에 있더군요. 저는 6·25때 아버지를 따라 황해도 사리원 이모택으로 피



金明子동문

던 金동문은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끝내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 남한으로 내려왔다. 경남 여고를 나와 모교 졸업 후 1967년 도미해 지금은 남편 吳泰堯(의학56-62)동문과 네브라스카주 오마하 지역에 살고 있다. 지금까지 1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하며 형제와 친척 60여 명을 돕고 있다. 지난 5월에도 평양을 방문해 화해 개혁 후 어려움에 처해 있던 친척들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왔다.

“이들을 돕는 게 저에게는 크나큰 십자가지만 언젠가 어머니 앞에 가는 날 형제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노라고 떳떳하게 말하고 싶어요. 어머니도 저를 칭찬해 주시겠죠.”

한편 金동문의 아들은 LA에서 뮤추얼펀드 매니저로 활동하며 어머니의 뜻에 따라 매년 모교 재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미주 의대동창회에도 기금을 출연해 아버지와 장인인 金建彦(의학59-65)동문의 이름을 딴 특지장학금을 설립하기도 했다.

정치외교학과동창회

黃圭軾 前차관 특강

정치외교학과동창회(회장 李圭煌)는 지난 7월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례조찬 모임을 가졌다. 이날 黃圭軾(국사70-74)前국방부 차관이 ‘전안한 사건과 김정일의 운명’이란 주제로 강연

을 펼쳤다.

모임에는 李圭煌회장을 비롯해 朴永秀(정치50-57)·宋柱仁(정치50-58)·俞賢濬(정치50입)·禹炳奎(정치51-55)·具範謨(정치52-56)·韓甲洙(정치52-56)·尹銘重(정치53-57)·桂昌鎬(정치54입)·南時旭(정치54-58)·崔東鎭(정치54-58)·黃慶瀾(정치54-58)동문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南〉

화제의 동문

청국장 전도사 호서대 金漢復교수

18년간 청국장 연구 … 신약 개발 도전

‘청국장 전도사’로 유명한 호서대 金漢復(미생물78-82)교수가 지난해 ‘마르퀴즈 후즈 후’에 이름을 올린데 이어 지난 4월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의 ‘국제 아인슈타인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더욱이 최근 IBC ‘플라톤 국제교육자상’ 수상자로도 선정돼, 金교수는 과학 및 교육 분야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는 진기록을 세웠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마르퀴즈 후즈 후’와 IBC 인명사전은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통한다.

지난 7월 21일 호서대 아산캠퍼스에서 만난 金교수는 “외국인에게 생소한 청국장을 주제로 오랫동안 꾸준히 연구해 온 걸 평가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조용한 목소리로 18년 청국장 인생에 대해 들려줬다.

‘국제 아인슈타인 과학자상’ 수상

金교수는 지난 1992년 호서대 생명공학과 교수로 부임해 이듬해인 1993년부터 청국장 연구를 시작했다. 청국장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를 분자 수준에서 연구하며 청국장의 항산화와 혈압강하, 면역조절, 항암 효과, 셀룰로스 분해효소 작용 메커니즘 등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청국장 먹기 운동, ‘청국장 다이어트&건강법’ 책 발간을 비롯해 신문·방송 등에 출연하며 ‘청국장 전도사’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특히 2006년 4월 고혈압 환자에게 특효가 있는 ‘혈압 강하 청국장(특허명 : 기호도가 향상된 혈압 강하 기능성 분말 청국장 조성물)’을 처음 개발해 메스컴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청국장 열풍은 金교수로부터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그가 조금은 동떨어진 청국장을 연구하게 된 이유는 뭘까? 金교수는 “남들이 접근하지 않은 독특한

소재를 찾다가 청국장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처음 학교에 왔을 때 기존에 연구했던 유전공학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분자생물학을 접목할 수 있는 소재 중 몸에 이로운 청국장을 찾게 됐죠. 청국장을 먹으면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즉 DNA, RNA, 단백질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죠. 식품학자들이 접근하는 방법과는 전혀 달라요. 세포 안에는 2만5천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것을 한 번에 연구하려면 DNA칩도 필요해요. 데이터 처리를 위해 통계학, 전산화도 알아야 하고요. 발효식품을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을 연계시켜서 분석하는 것이죠.”

청국장은 원래 겨울에 먹는 음식이었지만 요즘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사시사철, 여름에도 즐겨먹는다. 청국장의 좋은 효능이 널리 알려지면서부터다. 청국장은 발효하면서 콩에 없던 미생물과 효소, 생리활성물질이 다량으로 생긴다.

청국장이 갖고 있는 효소와 생리활성물질 등은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또 비타민B도 많이 들어 있어 간장의 해독기능을 도와 술과 담배로 시달린 간을 보호해 준다. 金교수는 요즘 청국장의 물질 중 혈관 내 축적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효소와 혈압을 낮추고 암을 예방하는 물질에 주목하고 있다.

“발효의 특성이 원재료에 없던 물질을 생성하고 흡수되기 어려운 형태를 인체에 흡수되기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특히 청국장의 생리활성물질 중 펩타이드와 이소플라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물질들이 혈압을 낮추고,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金교수가 지금까지 청국장의 장점을 밝혀내 널리 알리는 역할에 충실했다면 앞으



로는 생리활성물질을 추출해 신약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하지만 신약 개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서두를 마음은 없어요. 신약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건강식품을 만들 수도 있고 생청국장을 먹기 편하게 상용화하는 작업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청국장 다이어트로 20kg 줄여

金교수가 김치, 된장 등의 발효식품도 있는데 특별히 청국장을 연구 소재로 삼은 데에는 염분이 없기 때문이었다. 된장의 경우 제조과정에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지만 청국장은 그렇지 않다. 金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암에 잘 걸리는 이유는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라며 “된장이나 김치를 무조건 좋은 음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 등이 가미된 청국장으로 끓이는 찌개도 권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몸에 이로운 청국장은 ‘무염 생청국장’을 말한

다.

“청국장을 끓여먹을 경우 미생물과 효소가 모두 파괴돼요. 가스가 발생해 냄새도 심하고요. 저는 처음부터 무염 생청국장을 먹자고 주장했어요. 일본의 ‘나또’와 같은 거죠. 씹맛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먹어야 청국장의 좋은 효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죠.”

일본의 나또와 우리나라 청국장은 제조과정에서 차이가 난다. 나또의 경우 인위적으로 균주를 제조과정에서 투입하지만 우리 청국장은 균주를 넣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발효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지역에 따라, 계절에 따라 다양한 청국장이 만들어진다.

“나또의 경우 정부에서 허가한 균주를 넣어 동일한 제품이 나옵니다.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 제조·유통 시스템이 체계화돼 있어 표준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인위적이죠. 반면에 우리 청국장은 자연식품에 가깝습니다. 균이 계속 바뀌니까 인체에 미치는 효과도 다양하죠.”

金교수는 20년 전 통통한 얼굴 사진을 보여주며 “생청국장을 장복해 20kg 정도 몸무게를 줄였다”고 했다.

집안 식구들도 청국장을 좋아해 틈틈이 청국장 요리를 직접 해준다는 金교수는 “청국장은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우리 인체와 친하려는 습성이 있어 꾸준히 즐기면서 먹으면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1958년 대전 출생인 金교수는 관악고등학교를 나와 모교 미생물학과에 입학했다. 모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1992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분자생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 캡슐형 청국장을 개발했으며 청국장 발효균주 개발, 청국장의 기능성 연구 등 청국장 관련 논문만 40여 편을 발표했다. (南)



朴明珍부총장



李昇鍾특임부총장



金泓鍾교무처장



李鶴來학생처장



申熙泳연구처장



南益鉉기획처장



白淳根입학관리본부장



金俊基대의협력본부장



韓準九정보본부장



許南進기초교육원장



金炯周상임이사



吳星煥사회대 학장

모교 보직교수가 바뀌었어요

朴明珍부총장·李昇鍾특임부총장 등

모교 소식

모교(총장 吳然天)는 지난 7월 23~26일 부총장에 사회과학대학 朴明珍(불문65-69 본보 논설위원)교수, 특임부총장 겸 대학원장에 공과대학 李昇鍾(화학공학70-

74)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처부총장은 1980년 모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로 부임해 한국 언론학회장, 모교 중앙도서관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초대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특임부총장은 1984년 모교 화학공학과 교수로 부임해 모

교 BK21화공사업단장, 한국유변학회장 등을 지냈다.

또 교무처장에 수리과학부 金泓鍾(수학74-78)교수, 학생처장에 산립과학부 李鶴來(임산가공75-79)교수,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에 소아과학교실 申熙泳(의학74-80)교수, 기획처장에 경영학과 南益鉉(경영81-85)교수를 각각 선임했다.

입학관리본부장에 교육학과 白淳根(교육80-84)교수, 대외협력본부장에 행정대학원 金俊基(런던대89졸)교수, 정보화본부장 겸 중

양전산원장에 영상의학교실 韓準九(의학76-82)교수, 기초교육원장에 철학과 許南進(철학75-79)교수, 발전기금 상임이사에 컴퓨터공학부 金炯周(전자계산기공학78-82)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교무부처장에는 영문학과 李在影(영문83-87)교수, 학생부처장에 법학부 李元雨(사법82-86)교수, 연구부처장 겸 산학협력단 부단장에 제약학과 李奉振(약학77-81)교수, 기획부처장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李正東(자원공학86-90)교수, 대외협력본부 부본부

교 무 처 장 金泓鍾
교 무 부 처 장 李在影
학 생 처 장 李鶴來
학 생 부 처 장 李元雨
연 구 처 장 申熙泳
연 구 부 처 장 李奉振
기 획 처 장 南益鉉
기 획 부 처 장 李正東
입학관리본부장 白淳根
대외협력본부장 金俊基
대외협력부본부장 辛星昊
정 보 화 본 부 장 韓準九
정보화부본부장 張正柱
기 초 교 육 원 장 許南進
기초교육부원장 李日河
발전기금상임이사 金炯周
사 회 대 학 장 吳星煥

장에 국제대학원 辛星昊(외교87-91)교수, 정보화본부 부본부장 겸 중앙전산원 부원장에 경영학과 張正柱(경영85-89)교수, 기초교육원 부원장에 생명과학부 李日河(식물82-86)교수를 선임했다.

한편 지난 7월 16일 사회과학대학 학장에 경제학부 吳星煥(경제75-79)교수를 임명했다.

재학생 보금자리 기숙사 준공

7개동 재건축 ... 2천5백명 수용

모교는 지난 7월 13일 관악캠퍼스 후문 근처에 완공된 학생기숙사 재건축 준공식을 개최했다.

2008년 10월 착공해 재학생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거듭난 기숙사는 총 7개 동으로 지상 8층, 지하 2층의 연면적 67,275㎡ 규모이며 1인실 2백50실, 2인실 1천1백25실로 구성돼 총 2천5백여 명의 학생들을 수용하게 된다.

모교 李長茂 前총장은 “기숙사는 대학원생들에게 거주를 보장해 학생들이 안정된 자연친화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모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이번 기숙사 준공은 모교의 경사에 그치지 않고 한국을 배우려고 모교를 찾는 세계의 젊은이들에게도 큰 희망이 되고 요람이 될 것”이라며 “과거보다 편안하고 훌륭한 생활공간에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 사업비 약 8백15억2천여 만 원이 투입된 이번 재건축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BTL(Build-Transfer-Lease)방식으로 지어졌다.

미술관

‘백색의 봄’ 전시회

미술관(관장 鄭馨民)은 지난 7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주한 이탈리아문화원과 공동으로 ‘백색의 봄(Primavera del bianco)’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관화·사진·회화 등의 다양한 매체의 속성을 이용한 작품들을 소개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요일 및 국경일은 휴관한다. 〈문의: 880-9504〉 〈榮



‘아시아연구소’ 신축 기공

2백억원 들여 2012년 6월 건립

모교는 지난 7월 23일 관악캠퍼스에서 ‘아시아연구소’ 신축 기공식을 개최했다. 〈조감도 참조〉 이 연구소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1,732㎡ 규모로 2백7억2천4백만원이 투입되며 2012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모교 吳然天총장은 식사에서

“아시아는 세계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아시아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며 “연구소는 세계 수준의 첨단시설을 갖춰 강의와 국제회의, 정보 검색과 학술 활동을 지원해 세계 우수 석학들의 글로벌 학문공간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한 뒤 아시아연구소

명예소장을 자청했다.

이어 林玄鎭연구소장은 환영사에서 “곳은 낯씨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태평양시대를 맞이해 아시아연구소가 앞으로 필요한 지역연구의 허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吳然天총장의 취임 축하인사를 전한 뒤 “세계의 무게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며 “이 연구소가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의 리더로써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교는 아시아시대에 걸맞는 사회과학 이론과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할 아시아연구소가 세계 리더를 양성하는 국제교육기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과대학

우수학생센터 출범

공과대학(학장 姜泰晉)은 지난 7월 14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우수학생센터(STEM : SNU Tomorrow’s Edge Membership)’ 출범식을 가졌다.

STEM은 일정 자격(4학기 평점이 3.7 이상이거나 학부·과 석차 상위 10% 이상에 해당하며,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공대 재학생)을 갖춘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이다.

1기에 선발된 16명의 학생은 종신회원으로서 최상의 교육서비스와 지적 도전의 기회, 글로벌 리더십 교육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

라 학교와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한 봉사의 의무를 요구해 리더의 소양과 책임감을 갖추도록 교육받을 예정이다.

姜泰晉학장은 축사에서 “제1기 STEM 출범은 장래 우리나라, 나아가 세계를 이끌 리더를 배출하는 길을 닦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이제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 센터를 통해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우수학생센터’는 ‘Phi Beta Kappa’(인문·사회)와 ‘Tau Beta Phi’(공학)로 학교모임이 아니라 전국 조직이며 학생 자치기구이다. 모교 공대가 모델로 삼고 있는 ‘Phi Beta Kappa’는 1776년에 설립돼 지금까지 17명의 대통령과 37명의 대법관, 1백3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일강제병합’ 특별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원장 盧泰敦)은 지난 6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과 공동으로 모교 관악캠퍼스 규장각 지하 1층 전시실에서 ‘한일강제병합 100년 대한제국 특별전’을 개최한다.

올해 한일 강제병합 1백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개항에서 강제병합에 이르는 시기의 규장각 자료들을 중심으로 한일간의 현안인 ‘과거사 문제’의 진실을 밝히고 향후 한일관계 해결을 위한 전망을 제시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일요일 및 국경일은 휴관한다. 〈문의 : 880-5316〉 〈榮〉

재학생의 소리



미래 향한 도전을 키우는 삶

저는 서울대에서 학업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설계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리인 국제자원봉사를 통해 세계를 향한 넓은 꿈을 꾸며, 학업을 마친 후에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고자 합니다.



洪智訓
(화학09입)
국제자원봉사동아리 회장

동아리는 창립 이래, 다양한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동남아시아나 네팔, 인도 등 주요 지역으로 방학 때마다 나가 집짓기와 어린이 사역, 농촌봉사 활동 등 힘들지만 보람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방학을 통해 자신들의 놀이나 문화생활 위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끔은 지칠 때도 있지만 봉사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폭넓은 지식을 익히기면서 또 미래를 향한 도전을 배울 수 있어 매우 보람됩니다.

해외활동을 하다보면 적극적인 친구들도 있지만 봉사 준비만 돕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업과 맡은 일 때문에 방학 때 봉사를 준비합니다. 또 OB선배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끈끈한 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이기적이라는 편견과는 달리 저희 동아리는 냉철한 지성을 갖고 따뜻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훈련이 사회에 나가서 낮은 자들을 섬기고 베풀 줄 아는 진정한 이 시대의 리더가 되

기 위한 준비라고 봅니다.

인원이나 다른 규모들이 여러 가지로 작지만 저희 회원들은 서로 돕고 봉사를 준비하고 기획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잊을 수 없는 동아리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선배들도 동아리 활동의 경험을 살려 NGO단체 및 각 공공기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미래를 꿈꾸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 할 수 있어 무엇보다 뜻깊은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선배님들에게 이렇게 지면을 통해 동아리를 알릴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현재 저희 동아리가 점점 더 성장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 중입니다. 학생들이 자치문화활동을 꽃피울 수 있도록 선배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을 보내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동문 기고

명예박사학위 받은 소감

지난 5월 7일에 제가 모교로부터 명예공학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는 본인에게는 큰 영광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저명인사도 아닌 사람이 이러한 명예로운 학위를 받게 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날 학교측에서는 저 혼자를 위해서 성대한 수여식과 축하연을 베풀어 주셨고 평소에 제가 존경해 왔고 저를 애호해 주신 여러 귀빈들께서 참석하셔서 축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교 명예박사학위는 주로 우리나라에 큰 도움을 준 세계적으로 저명한 외국의 인사들에게 선별적으로 수여돼 왔으며, 1946년 모교가 국립대학으로 개교한 이후 지난 64년 동안 1백8명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이 중에서 내국인에게 수여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며, 내국인은 李承晩대통령(1949), 모교 李熙昇대학원장(1961), 趙伯顯교수(1961), 유타대 李泰圭교수(1964), 金壽煥추기경(1999), 삼성그룹 李健熙회장(2000), 금호아시아나그룹 朴晟容명예회장(2006), 朴婉緒소설가(2006), 潘基文 UN사무총장(2008)의 9명에 불과한데 이번에 저에게 수여한 것은 학교가 특별한 예우를 베풀어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명예공학박사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수여되는 학위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명예박사학위 수여가 이러한 단

순한 기부실적에 기인한 것은 아니며 지난 60년 동안의 직업활동과 사회활동 중에 달성한 고무산업 기술인으로서의 업적, 고무학회 및 관련 공익단체 활동, 신앙문화재단 설립과 목적사업 실적, 모교에 대한 지원, 국제로타리 봉사단체 활동, 지역사회 봉사실적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인 것입니다.

본인은 1966년에 故 安東赫박사께서 주도하신 화공과동창회의 발기 창립회원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이후 42년 동안 모교 동창회의 여러 직책을 역임하면서 지속적으로 물심양면의 모교 지원활동을 해 왔으며 2008년에 8년간의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직을 마치고, 유능한 후배에게 인계하고 42년간의 동창회 활동을 마쳤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발전기금에 기부를 하기 시작한 것은 1986년에 모교 개교 40주년을 기념하는 모금운동이 전개됐을 때 1천 만원을 기부하고 개인으로서는 최고의 기부금액이라고 해서 趙完圭총장님으로부터 특별 공로동문패를 받고 점심식사를 접대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1998년부터 工大엔지니어하우스의 건립기금 지원, 신앙학술정보관 I·II·III 건립, 工大신앙공학학술상기금 조성, 사회과학대의 기금교수 초빙기금, 의과대학 연구기금, 모교에 대한 교육연구비 지원, 모교 병원 난치병연구기금 등 1백여 회에 걸쳐 1백33억원의 기부실적을 달성해 모교의 최고액 기부자라는 평을 받게 된 것



鄭 哲 圭
(화학공학48-52)
신앙문화재단 이사장

입니다.

본인은 50년 동안 고무산업계에 종사하면서 자랑스러운 서울공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정부의 중소기업 전문화 및 계열화 정책에 호응해 수입에 의존해 오던 공업용 기능성 고무제품의 국산화 개발을 했습니다. 국내외에서 ‘無忍不勝’, ‘至誠感天’의 생활신조로 열심히 활동을 해왔으며 검소한 생활의 결과로 재산의 축적도 이뤄져서 오늘날의 사회봉사활동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본인이 이러한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저 혼자만의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며 많은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 이뤄진 것이니 사회에서 얻은 부를 사회에 환

원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인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고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한편으로는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자원이 빈곤하고 관광수입도 저조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탁월한 인재의 재능에 의한 부의 창출이 요망되며,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의 육성이 필수적이며 이 목적을 위해서 모교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선배들과 사회 유지들의 의무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규모는 세계 1위에서 10위권에 들어가는 여러 분야가 있으나 30위권에 들어가는 대학이 하나도 없으니 유감스러운 현실이며, 모교가 2025년까지 세계의 10대 대학으로 진입하는 VISION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창회의 존립목적이 동문간의 친목과 협력을 통한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지만 훌륭한 후배육성을 위한 모교에 대한 지원이 더욱 중요한 역할일 것이며, 훌륭한 후배의 배출이 없는 선배들의 사회적 위상은 빛을 상실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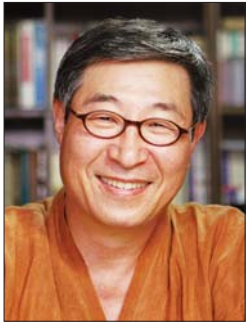
제가 이번에 모교로부터 이러한 영광스러운 예우를 받게 된 것은 저 혼자만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저를 도와주신 여러분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리며 오늘의 이 영광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본인과 신앙문화재단의 모교에 대한 지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에게 오늘의 영광을 안겨주신 여러 동문들의 애호와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콩트 릴레이

위대한 탐험가

金 碩 禧(불문72-76)소설가·번역가



그는 탐험가다.

이 세상에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 치고 그가 모르는 곳은 하나도 없다. 그는 아마존 강의 밀림을 답사했으며,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으며, 에베레스트 산을 가장 험난한 코스로 알려진 남북벽을 타고 등정했으며, 태평양을 동서남북으로 항해했으며, 북극과 남극의 꼭지점에도 서 보았다.

우리가 흔히 오대양 육대주라고 일컫는 이 지구의 구석구석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구는 둥글다는 사실을, 아프리카 남단에는 희망봉이 있고 또 그곳을 경계로 바다가 대서양과 인도양으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을, 길이가 4,100km이고 유역면적이

한 번도 그곳에, 그가 탐험하고 발견한 곳에 실제로 가본 적이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의 탐험은 나침반과 발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책과 공상으로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그가 스스로 주장하고 있고 또 원통하게 여기고 있다시피, 인도 항로를 개척한 바스코 다 가마, 아메리카를 발견한 아메리고 베스푸치, 아프리카 횡단에 성공한 헨리 스탠리, 북극점에 첫 깃발을 꽂은 로버트 피어리 등등 그 위대한 탐험가들보다 언제나 이 세상에 한 발 뒤늦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가 만약에 제임스 쿡 선장보다 먼저 태

의 발자국이라곤 한 번도 닿아본 적이 없는 곳을 찾는 데 열중했다. 여기는 어떨까 저기는 어떨까 하고 점찍은 다음, 혹시 다른 사람이 먼저 다녀간 사실은 없는지를 온갖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그러고는 실망하고, 그러나 다시금 용기를 북돋우며 새로운 장소를 탐색하고, 그러기를 거듭하면서 살아왔다.

그는 비록 한 번도 실제로 찾아나서본 적은 없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경험 많은 탐험가였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원정했으며, 마르코 폴로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중국에 이르는 대모험을 즐겼으며,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항해한 끝에 미국땅을 밟았으며, 필리핀의 한 섬에서 원주민의 창에 찔려 죽은 마젤란의 최후를 지켜보았으며, 코르테스의 원정대를 따라가 아스텍 제국을 멸망시켰다.

비록 서책과 공상을 통한 탐험과 모험의 길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겪었다. 눈을 감고도 태평양을 항해할 수 있고, 나침반이 없이도 북극점에 도달할 수 있고, 쌀 한 줌 없이도 알프스를 넘을 수 있을 터였다. 그야말로 그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역사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탐험가였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에게는 찾아나설 미지의 세

우선 해야 할 일은, 어디서 출발해 어떤 도정을 거쳐 목적지에 도달하느냐, 말하자면 탐험로를 설정하는 일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의 내부 모양을 알 필요가 있었다. 지금까지 이룩된 과학적 성과에 따르면 지구는 달걀처럼 세 개의 층으로 형성돼 있는데, 지표면에서 약 30km 깊이까지(달걀로 보면 껍질 부분)를 지각, 거기서 다시 2,900km 깊이까지(달걀로 보면 흰자위 부분)를 맨틀, 거기서 또다시 중심까지(달걀로 보면 노른자위 부분)를 핵이라고 한다.

출발점을 설정할 경우, 지표면은 육지와 바다로 이뤄져 있으므로, 처음부터 땅을 파 들어가는 것보다는 바다 속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터였다.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을 통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태평양의 괄 섬 근방에 위치한 비티아즈 해연이 바로 그런 곳이다. 그러므로 우선 필요한 장비는 잠수복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수심이 11,034m에 달하므로, 잠수복은 엄청난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될 필요가 있었다. 그런 다음 바다 밑바닥에서 다시 땅을 뚫고 들어가 지각층을 통과하려면 굴착기가 필요했다. 다행히 지각층을 통과했을 경우, 거기서 맨틀층을 통과하려면 거기에 따른 압력과 고열을 견딜 수 있는 장비가 필요했고, 거기서 다시 핵층을 통과해 지구의 중심에 도달하려면 또 거기에 따른 압력과 고열을 견딜 수 있는 장비가 필요했다.

필요한 것은 그뿐이 아니었다. 탐험이 얼마나 길질지는 모르지만 적잖은 양의 식량과 의복이 필요했고, 질병이나 재난에 대비한 구급약품도 필요했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듯이 혼자보다는 둘이서 떠나는 것이 여러 모로 도움이 될 터이므로 조수도 한 사람 필요했다. 그러려면 장비며 식량 따위도 두 배로 필요할 것이다. 그밖에도 필요한 것은 헤아리기조차 힘들만큼 많고 또 많았다. 필요한 물품 목록이 공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정도였다.

어쨌든 목록 작성이 끝나자 그는 동네에서 가장 크고 훌륭한 공장을 찾아갔다. 그러나 공장에서는 그가 주문한 장비들을 제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장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 장비들은 아마 영원히 만들 수 없을 거라는 대답이었다. 그를 더욱 실망시킨 것은 그의 탐험에 따라나서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그가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그는 슬프고 허전했다. 그는 아들이 내리도록 빈 들관을 돌아다녔다.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내가 찾아갈 곳은 어디엔가 분명히 있어. 그곳을 찾아내는 거야. 그는 다소 진정된 기분으로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동네 어귀에 이르렀을 때 그는 문득 갈증을 느꼈다. 거기에 우물이 있었으므로 더욱 그랬다. 물을 떠 마시려고 허리를 굽히니, 우물에는 하얀 달이 조용히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우물 속은 달까지의 거리만큼이나 아득하게 깊어 보였다. 그 순간 머릿속이 번뜩였다. 그래, 저곳에 뛰어드는 거야. 달이 저기에 있는 걸 보면, 지구 중심까지는 금방일 테니까. 그는 탐험가다운 용기와 열의와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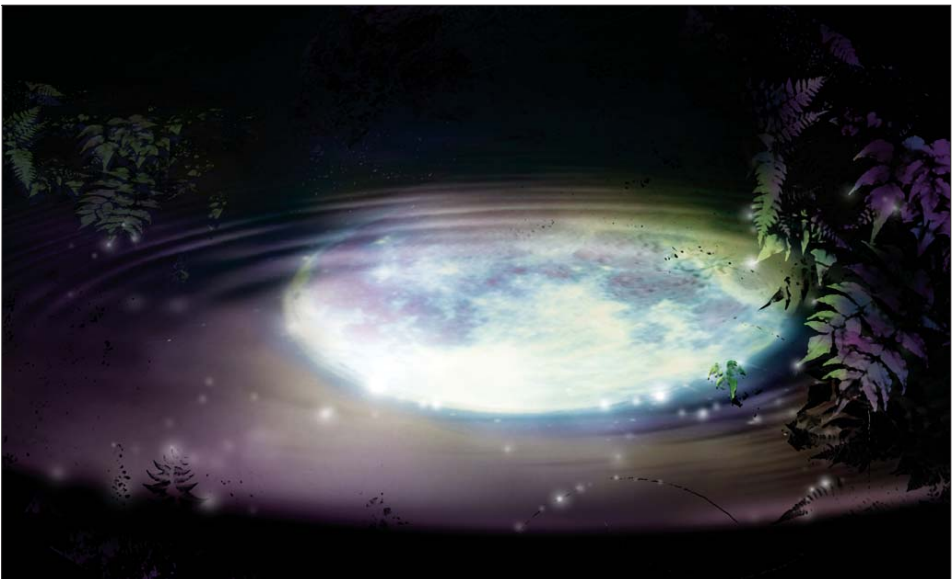
그때 마침 어둠을 밝으며 물을 길러 오던 한 아낙이 무엇인가 우물 속으로 풍덩 빠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뿐, 세상은 여전히 조용했다.

“

비록 서책과 공상을 통한 탐험과 모험의 길이었지만, 그야말로 그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역사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탐험가였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에게는 찾아나설 미지의 세계가 없었다,

”



일러스트레이터 金多海(서양화02 - 07)

98km에 달하는 황하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발원지는 손바닥만한 웅달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남극대륙에도 지의류와 진드기류 따위의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그를 위대한 탐험가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마르코 폴로와 이븐 바투타와 페르디난드 마젤란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데이비드 리빙스턴과 로알드 아문센 등 역사상 뛰어난 탐험가들과 나란히 놓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다. 이 약점은 실로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면 열 번, 백 번, 아니 천 번도 넘게 죽고 또 죽었을 만큼 온갖 고난과 갖가지 위험을 겪으며 이 세상 곳곳을 찾아다니고, 그 많은 발견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자신을 인류에게 제공했음에도, 그가 끝내 역사상의 인물로 남기는커녕 우리에게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은 까닭은 바로 그 약점 하나 때문이다.

그 약점이 무엇이나고? 현명한 독자라면 벌써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렇다. 그는 단

어났더라면 오스트레일리아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의 영토가 됐을 것이다. 그가 프란시스 피사로보다 먼저 태어났더라면 잉카 왕국은 우리의 식민지가 됐는지 모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언제나 그들보다 뒤늦게 이 세상에 태어났고, 따라서 언제나 그들에게 선수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지도를 펼쳐놓고 이리저리 살피며, 아마 이곳은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니까 아무도 가본 적이 없겠지 하고 책을 뒤져보면 2백년 전에 벌써 존 스튜어트가 다녀간 사실이 있고, 또 저곳은 하도 험난한 오지니까 아무도 감히 찾아갈 생각을 못했겠지 하고 다시 책을 뒤져보면 베이커 부부가 1백년도 전에 벌써 다녀간 일이 확인됐다. 매번 그런 식이었다.

탐험가란 위험을 무릅쓰고 미지의 세계를 찾아가는 사람이다. 그러한 그에게 미지의 세계, 인류 미담의 세계가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노릇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탐험가다운 불굴의 의지와 꺼질 줄 모른 정열이 있었다. 그는 아침에 눈만 뜨면 지도를 펼쳐놓고, 사람

계가 없었다.

아아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격언은 정녕코 헛말이 아니었다. 마침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곳, 아니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조차 못해본 곳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그곳을, 펼쳐놓은 지도에서가 아니라, 지구의를 심심풀이로 돌리다가 찾아냈다. 이제껏 탐험가들이 찾아가 발견한 곳들은 하나같이 지구 표면에 있었다. 그러나 그가 지금 막 탐험의 목적으로 점찍은 곳은 지구의 겉이 아니라 그 속에 있었다. 말하자면 그곳은 지구의 중심이었다. 그곳은 분명 존재하지만 어느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전인미답의 세계였다. 위대한 탐험가가 명실상부하게 찾아나설 만한 최적지였다. 그는 무릎을 치며 환성을 내질렀다. 이 간단한 해답을 찾기가 그토록 어렵다니!

그러나 가장 간단한 일이 가장 힘든 법. 장소를 선정하는 일도 그랬거니와, 막상 장소를 정하고 나자 그곳을 찾아가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일도 마찬가지로였다.

동 정

수 상

▲黃秉冀(법학55-59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지난 7월 2일 제21회 후쿠오카아시아문화상 수상자에 선정.

▲林泓根(법학58-62 성균관대 명예교수)=지난 7월 1일 한국상사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제1회 무예학술상 수상.

▲金光洙(응용화학67-71 포스텍 교수)=지난 7월 6일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에서 제8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韓民九(전기공학67-71 모교 전기공학부 교수)=지난 7월 6일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에서 제8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趙東成(경영67-71 모교 경영학과 교수·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장)=지난 7월 13일 서울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제28회 정진기언론문화상 장려상(경제경영도서부문) 수상.

▲孫鍾鎬(언어69-77 LS전선 사장)=지난 7월 13일 서울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제28회 정진기언론문화상 장려상(과학기술부문) 수상.

▲金鍾勳(건축69-73 한미파슨스 회장)=최근 경제주간지 매경이코노미가 평가한 '2010 한국의 경영대가 30인'에 선정.

▲成樂寅(행정69-73 모교 법학부 교수)=지난 7월 13일 재단법인 상허문화재단으로부터 제20회 常虛大賞(법률부문) 수상.

▲金 峰(기악70-79 경원대 교수)=지난 7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음악평론가협회가 수여하는 제26회 서울음

악대상 수상.
▲李大吉(기계공학71-75 KAIST 교수)=오는 9월 17일 제55회 대한민국의학술원상(자연과학 응용부문) 수상.

▲金敬眞(동물학71-75 모교 생명과학부 교수)=오는 9월 17일 제55회 대한민국의학술원상(자연과학 기초부문) 수상.

▲李揆昇(농공학71-75 성균관대 교수)=최근 미국 농공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최고 논문상 수상.

▲洪亨亨(금속공학72-76 KAIST 교수)=오는 9월 17일 제55회 대한민국의학술원상(자연과학 응용부문) 수상.

▲南昌熙(원자핵공학73-77 KAIST 교수)=오는 9월 17일 제55회 대한민국의학술원상(자연과학 기초부문) 수상.

▲劉 龍(공업화학73-77 KAIST 특훈교수)=지난 7월 8일 이탈리아 소렌토에서 열린 국제 제올라이트학회·국제 메조구조물질학회 공동심포지엄에서 한국인 최초로 브렉상 수상.

▲吳禹澤(제약74-78 모교 약학과 교수)=지난 7월 6일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에서 제8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金漢復(미생물78-82 호서대 교수)=최근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의 '국제 아인슈타인 과학자상' 수상자에 선정.

▲姜錫大(AIP 15기 우양기건 대표)=지난 7월 15일 제20회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 산업훈장 수훈.

▲梁基海(GLP 14기 세계종합환경 대표)=지난 7월 12~16일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된 제5회 EST국제학회에서 우수논문상 수상.

▲金商周(금속공학49-56 모교 재료공학부 명예교수·대한민국의학술원 회장)=지난 7월 9일 대한민국의학술원 정기총회에서 제33대 회장에 재선임.

▲金演表(임학51-58 산림임업사랑 시민연합회장)=지난 7월 14일 퇴직 임업인 모임인 사단법인 임우회 초대 회장에 선출.

▲蘇光熙(철학53-57 모교 철학과 명예교수·洸巖기념사업회 이사장)=지난 7월 9일 대한민국의학술원 회원에 선출.

▲李世中(행정53-57 변호사·본회 부회장)=지난 7월 6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재단 창립총회에서 초대 이사장에 선출.

▲李星珍(교육53-57 모교 교육학과 명예교수)=지난 6월 28일 임기 3년의 한국형동분석학회 이사장에 취임.

▲姜碩熙(작곡55-60 前모교 작곡과 교수·일본 소비학원대 객원교수)=지난 7월 7일 대한민국의학술원 회원에 선출.

▲沈憲燮(행정56-60 모교 법학부 명예교수)=지난 7월 9일 대한민국의학술원 회원에 선출.

▲韓松曄(전기공학57-63 모교 전기컴퓨터공학부 명예교수)=지난 7월 9일 대한민국의학술원 회원에 선출.

▲高奉鎭(철학57-64 前한국일보 멀티미디어 사장)=지난 7월 19일 수필가들의 모임인 수필문우회 제3대 회장에 선출.

▲金 旻(기악60-64 모교 기악과 명예교수·바이올리니스트)=지난 7월 7일 대한민국의학술원 회원에 선출.

▲李 櫟(화학65-69 모교 화학부 교수·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지난 7월 9일 대한민국의학술원 회원에 선출.

▲金斗哲(전자공학66-70 모교 물

인 사

새 국무총리에 金台鎬동문 내정 장·차관급에 동문 9명 기용

李明博대통령은 지난 8월 8일 제41대 국무총리에 金台鎬(농업교육80-85)前경상남도 도지사(사진)를 내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李周浩(무역79-83)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申載燮(정치77-82)제1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劉正福(행정86-88)국회의원, 지식경제부 장관에 李載勳(경제74-78)前제2차관, 고용노동부 장관에 朴宰完(경제73-77)前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각각 발탁했다.

또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에 林采民(서양사학77-81)前지식



경제부 제1차관, 차관급인 법제처장에 鄭善太(법학75-79)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장, 국세청장에 李炫東(ALP 11기)차장, 경찰청장에 趙顯五(대학원86졸)서울경찰청장을 기용했다.

리전문학부 교수)=지난 7월 1일 KAIST 5대 고등과학원장에 취임.

▲任廷基(의학68-75 모교 의대학장)=지난 7월 2일 (사)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총회에서 2년 임기의 이사장에 재선임.

▲金孝全(대학원70졸 前한국공법학회·동아대 교수)=지난 7월 9일 대한민국의학술원 회원에 선출.

▲申喜燮(의학68-74 KIST 신경과학센터장·한국생명공학연구원 협의회장)=지난 7월 9일 대한민국의학술원 회원에 선출.

▲朴宇淳(사회사업71-75 변호사)=지난 7월 28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강원 원주(민주당)에서 당선.

▲辛京珉(사회71-75 MBC 선임기자·본보 논설위원)=지난 7월 16일 MBC 보도제작국 논설위원에 선임.

▲張秉浚(무역71-75 호남대 총장)=지난 7월 28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광주 남구(민주당)에서 당선.

▲柳明姬(미생물72-76 KIST 21세기 프론티어사업단장)=지난 7

월 16일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에 임명.

▲崔忠柱(경제73-77 前주변쿠버총영사·외교통상부 본부대사)=지난 8월 3일 주과키스탄대사에 임명.

▲金炳華(법학74-78 前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지난 7월 15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취임.

▲任太熙(경영76-80 국회의원·고용노동부 장관)=지난 7월 16일 청와대 대통령실장에 임명.

▲金斗宇(외교76-80 前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청와대 메시지기획관)=지난 7월 16일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에 임명.

▲李載元(법학76-80 前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지난 7월 1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취임.

▲金學義(법학76-80 前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지난 7월 15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취임.

▲李京勳(행정76-79 前부산시정무부시장·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지난 6월 2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부산 사하구청장(한나라당)에 당선.

▲金秀南(법학78-82 前법무부 기획정책실장·청주지방법검찰청 검사장)=지난 7월 15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취임.

▲金賢雄(법학78-82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지난 7월 15일 춘천지방법검찰청 검사장에 취임.



▲蘇秉哲(법학78-82 前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대검찰청 형사부장)=지난 7월 15일 대전지방법검찰청 검사장에 취임.



▲韓明官(법학78-82 前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대전지방법검찰청 검사장)=지난 7월 15일 법무부 법무실장에 취임.



▲南基春(법학79-83 前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울산지방법검찰청 검사장)=지난 7월 15일 서울 서부지방법검찰청 검사장에 취임.



▲黃允成(법학79-83 前대구지방법검찰청 서부지청장·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지난 7월 15일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취임.



▲金演光(정치80-84 특임장관실 특임실장)=지난 7월 20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정무1비서관에 임명.

▲李昌世(법학80-84 前대검찰청 감찰부장·창원지방법검찰청 검사장)=지난 7월 15일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 검사장에 취임.



▲鄭炳斗(법학80-84 前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차장검사·춘천지방법검찰청 검사장)=지난 7월 15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에 취임.



▲金在穆(정치81-85 前문화일보 논설위원)=지난 7월 20일 재단법인 에버그린21 대표이사에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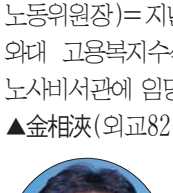
▲鞠敏秀(사법81-85 前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지난 7월 15일 청주지방법검찰청 검사장에 취임.



▲李建莅(사법81-85 前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지난 7월 15일 제주지방법검찰청 검사장에 취임.



▲崔在卿(공법81-85 前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차장검사·법무부 기획조정실장)=지난 7월 15일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취임.



▲李基權(행대원81-83 서울지방노동위원장)=지난 7월 20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 고용노사비서관에 임명.



▲金相夾(외교82-86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지난 7월 20일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실 녹색성장환경비서관에 임명.

▲張錫明(외교82-86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지난 7월 20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

▲金熙官(사법82-86 前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차장검사·대전지방법검찰청 차장검사)=지난 7월 15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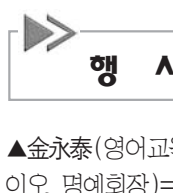
▲趙允旋(외교84-88 前한나라당 대변인·국회의원)=지난 7월 27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외원조 홍보대사에 위촉.



▲安鎬元(HPM 6기 부천대 객원교수·칼럼니스트)=지난 7월 14일 한국경찰복지연구소 선임연구위원에 위촉.



▲鄭鎮碩(ALP 10기 국회의원·계통장학회 이사장)=지난 7월 16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임명.



행 사

▲金永泰(영어교육53-57 프리씨이오 명예회장)=지난 7월 26일 서울 자양동 '더클래식500'에서 '환단의 후예' 출판기념회 개최.



▲俞東濬(잠사56-60 부운장학회 이사장·수원지부동창회장)=지난 7월 20~25일 러시아(자루비노, 크라스키노)와 중국(훈춘, 연길, 용정)을 방문해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전망' 간담회 개최.

▲鄭卓永(회화56-60 前모교 동양화과 교수·朴壽根화백 선양회 및 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최근 故 朴壽根화백 45주기를 맞아 직접 작사·작곡한 봉정동요 '봄이 왔네요' 공개.



▲李在昌(법학56-60 새마을운동중앙회장)=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새마을운동 모니터링을 위해 우간다,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방문.



▲이정현(성악97-03 前모교 오페라연구소 연구원·테너)=최근 '사랑은 기억 속에 흩어져'를 타이틀곡으로 첫 번째 솔로앨범



발매.

▲鄭義淳(AMP 4기 극동포럼 이사장)=지난 8월 4일 미국 LA USC Town and Gown Hall에서 李相得국회의원을 초청해 'Energy Diplomacy' 주제의 제21차 포럼 개최.



▲金澈運(AMP 33기 한국물가협회장)=최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제4회 물가안정대상 시상식 개최.



▲梁在吉(GLP 5기 중국 대표)=지난 8월 20일 경기대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 받음.



■삼가 명복을 빕니다■

- ▲權相澈(경성사범35졸 안양과학대 이사장)=7월 24일 별세(96세)
- ▲梁興模(경제44-50 前방문진 이사장)=7월 20일 별세(86세)
- ▲玄鎬慶(경제45-51)=7월 19일 별세(87세)
- ▲李爽熙(철학46-48 前대우재단 이사장)=7월 22일 별세(91세)
- ▲姜洪烈(화학공학48-52 前과학재단 이사장)=7월 23일 별세(82세)
- ▲石世助(수의학50-54 시온고 교장)=7월 5일 별세(79세)
- ▲李在雄(법학51-55 고려종합경제연구소 대표)=7월 17일 별세(77세)
- ▲趙鶴鉉(법학51-55 前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7월 13일 별세(79세)
- ▲張志浩(정치52-56 前인하대 교수)=7월 25일 별세(78세)
- ▲李相禧(사회53-58 모교 명예교수)=7월 9일 별세(81세)
- ▲金鍾遠(토목공학54-58 前농림부 기술심의관)=7월 29일 별세(74세)
- ▲金聲武(물리55-60 前태평양생명 사장)=7월 6일 별세(77세)
- ▲任慶彬(치의학60-66 신라치과 원장)=7월 5일 별세(69세)
- ▲李庸化(약학62-66 前진양제약 부회장)=7월 28일 별세(68세)
- ▲李喆坤(농화학68-76 前대한도시가스 전무)=7월 15일 별세(61세)
- ▲張泰玩(AMP 6기 前국회의원)=7월 26일 별세(79세)

‘동정’란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이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naver.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신 간

■ 벽을 넘는다

－ 李長茂 지음



지난 7월 19일 퇴임한 모교 李長茂 (기계공학63-67) 전임총장이 지난 4년을 회고하며 재임기간

중에 느낀 고뇌와 성취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낸 책. 李 前총장은 이 책을 통해 기회균형선발과 지역활당제 등을 통해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모교 총장의 신분으로 만났던 세계적인 대학 총장, 석학, 명사들과의 이야기와 그들에 대한 설명, 시사점을 꼼꼼하게 실어 격변하는 미래에 대한 중요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12,000원〉

■ 태평양의 바람

－ 金東益 지음



조설일보 기자, 중앙일보 편집국장·주필·대표, 정무 제1장관, 용인송담대 총장 등을 역임한 金東益 (법학53-57) 동문의 실명소설. 제2차 세계대전과 해방, 한국전쟁, 4·19와 5·16, 베트남전쟁, 金大中 납치사건, 朴正熙와 핵개발 등 한국 현대사의 모질고 거친 궤적을 두 발로 직접 밟은 주인공 ‘임성래’ (스티브 임)의 고백을 뼈대로 한 팩션 (Faction)이다.

金동문은 이 실명소설을 집필하기 위해 실존 인물인 스티브의 진술을 듣고 참고했으며, 그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스티브를 아는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 작품을 완성했다. 〈나남刊·값10,000원〉

■ 한반도 新시나리오

－ 韓寅燮 지음



미 국영 미국의 소리 (VOA) 한국 어방송국장을 역임한 워싱턴 자유아시아 방 송 (RFA) 韓寅燮 (정치55-59) 한국어방송국장의 고백서.

韓동문이 지난 40여 년 동안 워싱턴에서 기자 및 방송국장으로 일하면서 한국전쟁 후 남북한과 미국의 삼각관계가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 왔고 그때마다 각각의 정치인, 정부 관리, 전문가들은 그 사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하며 방향을 설정해왔는지를 기록한 책을 펴냈다.

한반도를 관통하는 핵폭탄을 화두로 남북한과 미국의 삼각 트라이앵글에 주목했다. 〈문예당刊·값13,000원〉

■ 인간과 사회와 함께한

과학기술 발전의 발자취

－ 朴準佑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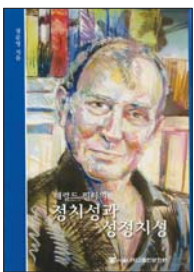
이 화여대학 화학·나노과학과 朴準佑 (화학 65-69) 교수가 과학과 기술의 참뜻은 무엇이며, 과학과 기술이 어떤 사회·문화적 토양에서 발전하고 쇠퇴했으며, 오늘날의 과학과 기술이 어떤 사람들에게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져 왔는가를 소개한다.

이 책에는 우리 주변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으며, 인명 찾아보기를 통해 과학기술자들의 출생과 사망 연대를 파악하고 어느 시대의 사람이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해당 업적을 내었는지 짐작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아카데미刊·값20,000원〉

■ 해럴드 핀터의

정치성과 성정치성

－ 鄭文玲 지음



계명대 영어영문학과 鄭文玲 (영어교육 76-80) 교수가 영국의 극작가이자 활발한 정치운동가 그리고 ‘은밀한 페미니스트’로 생을 마감한 해럴드 핀터 (200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극작품들을 분석했다.

이 책은 ‘생일파티’, ‘귀향’, ‘배신’, ‘일종의 알래스카’, ‘빅토리아 역’, ‘가족의 목소리들’, ‘마지막 한 잔’, ‘산악 언어’, ‘달빛’, ‘재에서 제로’, ‘축하파티’ 등 11개 작품들에 대한 소급적 읽기를 통해 핀터의 정치성과 성정치성의 상호관계성, 이들의 도난과 전복, 그 사이에서의 새로운 되기 등을 주요 논지로 다루고 있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18,000원〉

■ 화학이 안내하는

바다탐구

－ 金慶烈 지음



어준다.

바닷물은 얼마나 짠지, 왜 짠지,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 알게 된 바다와 표층의 바닷물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체 바닷물은 어떻게 섞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또 바다 밑 해저의 모습을 통해 해저탐구에서 드러난 관구조론과 이 이론으로 살펴보는 바다와 해저를 얹고 있는 퇴적물이 들려주는 지난 1억여 년의 역사도 흥미롭다. 〈자유아카데미刊·값28,000원〉

■ 초콜릿 크리스천

－ 吳泰東 지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신앙생활의 고민과 영적 고뇌를, 동시대를 살았던 평신도 吳泰東 (경영 76-80) 동문이 지난 4년 동안의 깊은 묵상과 성찰을 통해 정리해 낸 묵상고백론.

삶의 현장과 영적 전쟁터에서 그리스도인이 겪는 신앙과 삶의 문제는 다양하다. 특히 치열한 현대인의 삶의 문제들에 복음의 참 뜻과 말씀을 생활화한다는 것은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다.

성지 전문가이자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吳동문은 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녀도 신앙이 자라가지 못한 채 답답해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형제, ‘초콜릿 크리스천’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스테이지팩토리刊·값13,000원〉

■ 미디어 심리학

－ 羅恩暎 지음



에일대에서 사회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서강대 羅恩暎 (영문 81-85) 교수가 인간 중심의 미디어 심리학에 대해 설명한 책.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디어의 각 장르

공연

■ 李恩姬 피아노독주회

－ 8월 22일 금호아트홀



오후 7시 30분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연다.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李동문은 이날 베토벤, 키르히너, 슈베르트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부암아트 391-9631〉

■ 李正錫 트럼본독주회

－ 8월 28일 세종문화회관



진)이 8월 28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트럼본독주회를 갖는다.

독일 데트몰트 음대를 졸업한 李동문은 이날 에밀 로가의 협주곡을 비롯해 존 케이지, 필리프 고베르 등의 작품으로 수준 높은 기량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아트앤뮤직 010-3430-0923〉

■ 임남희 피아노독주회

－ 8월 29일 금호아트홀

미국 이스트만 음대에서 피아



노 연주 및 문헌 박사학위를 받은 임남희 (기악95-99) 이니스앙상블 멤버) 동문 (사진)이 8월 29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피아노독주회를 갖는다.

이날 베토벤, 슈만, 쇼팽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 許慈卿 피아노독주회

－ 8월 31일 금호아트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에서 솔로 연주자과정을 최우수 졸업한 許慈卿 (기악90-94 숙명여대 강사) 동문이 8월 31일 오후 8시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피아노독주회를 개최한다.

許동문은 이날 슈만, 쇼팽 등의 작품으로 청중과 호흡을 함께 한다. 〈공연문의: 부암아트 391-9631〉

■ 최유진 바이올린독주회

－ 9월 4일 세종문화회관



미 국 보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바이올리니스트 최유진 (기악98-02 성신여대 강사) 동문 (사진)이 9월 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독주회를 연다.

라벨, 스트라빈스키, 프로코피예프 등 20세기 신고전주의의 대표적 작곡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인문학과 문화, 예술의 영역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柳 동문은 평소 책을 가까이 하고 음악, 미술, 문학, 역사, 철학에 관심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인문학이 아날로 물질지향적인 세상을 일깨우고 각박한 일상에서 스스로의 중심을 잡게 하며 인간의 본성을 성찰하게 한다고 말한다.

총 5부로 나뉜 이 책은 과거의 유물로 치부되기 쉬운 인문학을 오늘날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생생한 이야기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刊·값13,000원〉

별 특성은 무엇이고 각 장르의 독특한 연결 구조에 의해 어떠한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 등을 사회 심리학 이론을 적용시켜 밀도 있게 분석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장르간 융합 현상과 인터넷, 모바일 폰,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와 예술의 접점인 미디어 아트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룬다. 〈한나래刊·값15,000원〉

■ 인문학 두드림 콘서트

－ 柳在遠 지음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柳在遠 (국사98-04·법학03-10) 법제팀장이

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은 계속됩니다

〈참여 기회 놓치지 말고 서두릅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 관악회]

목표액 : 300억원

◆50억원
△임광수(기계공학48-52)
◆20억원
△김종섭(사회사업66-70)
◆15억원
△故박관호(화학교육51줄)
·신명규(생물교육48-54)
◆10억원
△강신호(의학46-52)
△곽영필(토목공학56-60)
△구평희(정치학47-51)
△김상하(정치학45-49)
△김은중(경제학59-63)
△김정식(전자공학48-56)
△김형주(토목공학46-50)
△박호전(경영학62-66)
·김영희(작곡62-66)
△신창재(의학72-78)
△오동영(조선항공54입)
·김친숙(치의학56-60)
△윤세영(행정학56-61)
△이준용(경제학56-60)
△정계영(상학61-66)
△정팔도(AIP 1기)
·이지행
△홍성대(수학57-63)
◆5억원
△김주진(법학54입)
△조기호(화학교육54-58)
·이영자(생물교육56-60)
◆3억원
△김병순(AMP 4기)
·이지호(의학77-83)
△이길여(의학51-57)
△정석규(화학공학48-52)
△허남각(경제학56-60)
◆2억원
△남정현(건축학57-61)
△손경식(법학57-61)
△이종기(경영학69-73)
△이준행(섬유공학48-54)
△장용택(약학55-61)
△장학순(토목공학46-50)
△조필제(조선항공46-50)
◆1억5천만원
△故김도창(법학43-47)
·목촌5부자
◆1억3천5백만원
△장병덕(화학교육53-57)
◆1억2천만원
△엄병윤(외교학60-64)
◆1억1천1백20만원
△미술대학동창회
◆1억1천만원
△김병찬(의학53-60)
△성백전(토목공학52-56)

·김안순(화학공학54-58)
△수학과동창회
◆1억30만원
△김동길(화학교육57-61)
△박성훈(기계공학58-63)
◆1억원
△강순걸(법학54-58)
△곽동현(법학61-65)
△김두희(물리학52입)
△김문현(상학58-64)
△故김영경(기계공학52-56)
△김정철(건축학52-56)
·김정식(건축학54-58)
△김창식(전기공학53-57)
△나공목(상학56-61)
△남상용(건축학52-57)
△노인환(경제학54-58)
·故한명화(가정교육60줄)
△류중희(기계공학53-57)
△명태현(기계공학46-50)
△박명운(보대원74-76)
·이행자(보대원69-71)
△박실상(AIC 9기)
△박희백(의학51-57)
△변주선(영어교육60-64)
△서정화(법학51-55)
△故손치무(대학원70줄)
△안성철(행정학58-63)
·손윤숙
△故양은숙(간호학51-54)
△故오영현(섬유공학71-71)
·추경옥
△오홍조(치의학56-61)
△우인성(기계공학58-62)
△유상부(토목공학60-64)
△이금기(약학55-59)
△이상범(법학53-57)
△이수범(행정학56-60)
△이예식(약학46-49)
△이정상(상학59-65)
△이지호(의학77-83)
△이해원(행정학51-55)
△장세일(전기공학59-63)
△장중환(의학69-76)
△전동용(수의학52-56)
△정윤환(임학56-62)
△정중시(화학공학72-76)
△조정일(약학64-68)
△조병우(섬유공학59-64)
△지원철(축산학73-77)
△최두형(행정학51-55)
△최상홍(기계공학54-58)
△최희장(섬유공학58-64)
△홍상욱(원예학83-87)
△홍예표(치의학65-71)
·김영숙
△보건대학원동창회
◆6천만원
△김윤택(경대원68-70)

△이창원(법학55-60)
△화학과동창회
◆5천5백만원
△농대 그린장학회
◆5천2백만원
△이현조(철학52-57)
◆5천50만원
△허상완(치의학64-70)
◆5천30만원
△이종현(경제학59-65)
·신갑순
◆5천10만원
△박남식(SCS 2기)
◆5천만원
△강인구(수의학59-64)
△공대식(기계공학56-60)
△김정희(약학57-61)
△김중기(생물교육51-55)
△김중서(경제학58-63)
△김중현(경제학55-59)
△류재명(AMP 34기)
△미국철(공업교육68-72)
△박주탁(무역학69-74)
△손일근(법학51-64)
△노만수(의학72-78)
·송경희(식품영양74-78)
△안 훈(수의학53-57)
△오인석(행정학58-62)
△유종해(법학50-54)
△이도경(농학56-63)
·이찬진(기계공학84-89)
△이순석(약학61-65)
△이승준(섬유공학56-60)
·이청원(자원공학67줄)
△이운주(의학81-87)
·오지은(인류학83-87)
△이원규(농생물학58-63)
△이재원(상학55-59)
△이중대(천문기상69줄)
△이형도(화학공학61-67)
·박호순(영어교육66-70)
△정대영(경제학51-55)
△정재봉(사회사업60-64)
△지창수(상학55-59)
△故하권익(의학57-63)
△하부열(경영학74-78)
△허병하(상학58-62)
△황해근(토목공학54-60)
·故이금옥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농대 일산회
△한우리SJM
◆3천60만원
△원정수(건축학53-57)
·지 순(건축학54-58)
◆3천만원
△강신혁(문리66-73)
△고원호(기계공학48줄)
△박홍일(영어교육60-64)

△송명호(자원공학59-65)
△심형윤(토목공학52-56)
△유석홍(무역학61-65)
·박영희(기약70줄)
△이경택(섬유공학57-61)
△이광식(약학66-70)
◆2천만원
△강학순(기계공학64-69)
△고은희(생물교육53-58)
△김원일(건축학61-65)
·최미혜(성악66-70)
△故김재백(약학52-56)
△서병륜(농공학69-73)
△故윤세극(경제학45-51)
△조갑주(경제학58-63)
·정정영(불어불문62-66)
△최정길(금속공학52-56)
◆1천5백만원
△김철순(조경학76-83)
△이재형(기계설계76-80)
·이승희(전기공학06-10)
△한규택(원자핵공학73-77)
△치불회
◆1천2백만원
△강웅선(치의학78-84)
△김현산(법학54-58)
△김형오(외교학67-71)
△심영보(의학55-61)
△안동일(법학59-63)
△오상호(전기공학48-55)
△이내원(화학교육58-62)
△이재철(법학70-77)
◆1천1백50만원
△천남중(자원공학65-69)
◆1천1백30만원
△신면우(의학50줄)
◆1천1백20만원
△윤홍중(약학55-59)
·故이상임
◆1천1백10만원
△손수일(법학74-78)
△이홍중(역사교육54-58)
◆1천1백만원
△김상복(종교학57-63)
△김상수(자원공학73-77)
·김태훈(건축학02-07)
△정해남(법학72-76)
◆1천80만원
△서병태(의학54-60)
△조내규(약학58-62)
◆1천70만원
△김정범(치의학60-66)
◆1천60만원
△박준욱(약학55-59)
◆1천40만원
△이도천(임학55-60)
◆1천30만원
△박만호(행정학57-62)
△심이택(화학공학57-63)



△이영필(항공공학66-71)
△이형하(법학74-78)
△지현택(치의학43-47)
△허성길(경제학60-64)
◆1천23만원
△강에드워드(독어교육65줄)
◆1천10만원
△서범주(불어불문59-63)
△이인규(지구과학59-65)
◆1천만원
△강신주(사회교육51-55)
△강용현(법학71-78)
△강행언(토목공학61-65)
△고광우(행정학53-58)
△공구영(물리교육54-58)
△권동은(FIP 4기)
△권혁웅(불어불문59-63)
△금진호(법학50-58)
△김 철(기계공학64-68)
△김기춘(법학58-62)
△김두만(상학59-63)
△김미령(약학74줄)
△김백준(수학62-66)
△김병린(토목공학55-59)
△김상호(법학72-76)
△김선양(중어중문84-88)
△김수광(금속공학59-63)
△김연호(화학공학71-75)
△김영갑(법학74-78)
△김영석(경제학60-66)
△김영재(공업화학77-81)
△김원배(동물학55-60)
△김윤중(약학64-71)
△김은식(국사학73-80)
·윤영옥(생물교육72-76)
△김일섭(경영학64-69)
△김재범(산업공학74-78)
△김재호(생물교육53-57)
△김주환(토목공학57-61)
△김진규(기계공학61-66)
△김찬욱(기계공학55-59)

△김철수(법학52-56)
△김평우(법학63-67)
△노병수(공법학83-87)
△류태환(상학48-54)
△문규철(응용화학69-73)
△문대원(경영학71-75)
△문명국(기계공학73-75)
△문성훈(식품공학86-92)
△박덕철(기계공학57-61)
△박명학(영어교육61-65)
△박영준(상학60-66)
△박종국(농화학57-63)
△박준우(의학75-81)
△박진희(무역학76-80)
△박창우(경제학80-84)
△배명인(법학52-56)
△백사익(채광학40-42)
△변상현(의학51-57)
△서계숙(기약56-60)
△석학진(상학58-64)
△설동섭(축산학53-57)
△신방호(경제학67-71)
△신윤식(사학55-59)
△신혜순(가정교육47-51)
△안경상(행정학57줄)
·김정애(가정교육54-58)
△양배덕(전기공학57-61)
△양성철(정치학58-64)
△엄기영(사회학70-74)
△오병제(AMP 21기)
△오용섭(임학60-66)
△유형록(의학57-63)
△유홍수(법학58-65)
△유희춘(상학49-55)
△윤영석(경제학58-64)
△윤희진(축산학63-67)
△이강수(상학51-55)
△이경호(행정학61-65)
△이계우(행정학58-63)
△이동철(토목공학78-82)
△이문환(수의학66-73)

△이병재 (경대원69졸)
△이병형 (화학67-71)
△이상현 (정치학64-68)
△이석운 (영어영문50졸)
△이세중 (행정학53-57)
△이승은 (상학53-57)
△이인기 (지질과학62-66)
△이재후 (법학58-62)
△이전구 (임학60-64)
△이종웅 (기계공학65-69)
△이진규 (치의학78-84)
△이창기 (약학55-59)
△장무환 (경제학45-51)
△장세권 (농공학70-76)
△장익용 (기계공학54-58)
△장지준 (의학70-77)
△장휴동 (농경제학59-63)
△조길웅 (HPM 14기)
△조원환 (AMPP 6기)
△조정훈 (자원공학75-81)
△최규팔 (계약학70-74)
△최남태 (상학52-56)
△최선집 (사회교육75-79)
△최승철 (기계공학66-70)
△최준기 (조선항공57-61)
△추재욱 (의학63졸)
△표상기 (원자력공61-65)
△하영기 (정치학44-48)
△한창섭 (정치학57-62)
△故함인영 (기계공학48졸)
△함정호 (행정학53-57)
△허 선 (정치학64-68)
△홍순자 (독어교육61-65)
△황경로 (AMP 11기)
△황남주 (물리학87-92)
△전북지부동창회
△간호대학동창회
◆7백만원
△정경모 (행대원65-67)
◆6백만원
△오창석 (전기공학46-50)
△이재식 (교육학75-79)
◆5백만원
△김영수 (법학60-64)
·원준손 (국어국문64-68)
△박수복 (농생물학56-61)
△서립규 (토목공학57-61)
△송진태 (공업교육63-72)
△신박일 (약학60-64)
△윤성근 (공업교육74-78)
△윤순녕 (간호학69-73)
△윤익석 (축산학49-53)
△이광성 (공업교육66-70)
△이기수 (대학원70-72)
△이윤경 (간호학65-69)
△이현구 (AMP 52기)
△정주석 (법학61-65)
△조상근 (행정학69-73)
△법대37회 동교회
△오사카지부동창회
△AMPFRI동창회
△FIP동창회 (김명도)
◆4백30만원
△강충원 (전기공학59-65)
◆3백90만원
△이정식 (지구과학72-76)
◆3백50만원
△임장주 (SPARC 11기)
◆3백30만원
△김석만 (화학57졸)
△이종복 (응용미술62-66)

◆3백10만원
△인효석 (농공학80-87)
△최병호 (화학교육57-61)
△한규범 (AMP 42기)
◆3백만원
△강영현 (농경제학69-76)
△권숙일 (물리학54-58)
△권혁창 (지구과학69-76)
△김인규 (정치학69-73)
△김재율 (경성법전39졸)
△김형기 (불어교육72-76)
△박공식 (화학54-58)
△안재동 (상학60-67)
△이동수 (건축학61-66)
△이성기 (행대원63-65)
△임채주 (경제학55-59)
△정영채 (수의학56-60)
△하재규 (농학53-57)
△한성택 (약학58-62)
△황선용 (사회교육57-61)
◆2백50만원
△김혜경 (생물교육70-74)
△故이용희 (간호학75졸)
△홍순명 (축산학68-72)
◆2백30만원
△신성우 (AMP 32기)
△이준형 (GLP 11기)
◆2백만원
△나정우 (농공학72-77)
△문창국 (정치학68-72)
△故박태원 (정치학46-50)
△성기학 (무역학66-70)
△심상우 (축산학57-61)
△오복동 (법학57-63)
△유지열 (외교학84-88)
△윤정일 (교육학62-66)
△윤정철 (의학59-65)
△이경렬 (응용미술69-73)
△이원태 (농경제학64-68)
△이원환 (토목공학49-53)
△이준손 (법학57-61)
△이홍구 (법학53입)
△이희호 (교육학46-50)
△임규운 (행정학53-57)
△정낙찬 (서양사학9-73)
△정용인 (법학60-64)
△최인갑 (금속공학57-62)
△최창식 (의학54-60)
△한영국 (경제학50-54)
△허영호 (전자공학71-75)
△홍석준 (사회학73-77)
△황선태 (법학66-70)
△황의인 (법학74-78)
◆1백80만원
△노 영 (의학70-77)
◆1백70만원
△이규대 (AIP 36기)
◆1백50만원
△곽 승 (화학공학59-63)
△김건호 (수의학70-74)
△오길록 (전문기상64-68)
△윤옥영 (수학58-61)
△이기남 (수학67-71)
△이진호 (화학공학85-89)
△정성진 (법학58-63)
△조귀장 (사법학86-90)
·김주영 (지리학92-97)
△조현태 (대학원75입)
△채규대 (경제학56-60)
◆1백40만원
△김병익 (정치학57-61)

△이병상 (사회학61-65)
◆1백30만원
△김영근 (법학57-59)
△김종철 (치의학71-77)
△김진익 (법학55-60)
△문일환 (치의학65-71)
△양동관 (법학67-71)
△이만손 (상학57-63)
△이몽우 (공업교육64-68)
△이태형 (상학59-63)
△임한조 (물리학67-71)
△정휘위 (법학62-66)
△조병철 (섬유공학59-65)
△최동식 (법학76-80)
△최명재 (상학48입)
△추호석 (경영학69-73)
△현천옥 (법학72-76)
◆1백23만4천5백67원
△김성수 (농업교육63-67)
◆1백23만원
△홍정식 (사회교육52-56)
◆1백21만원
△박정식 (약학57-61)
◆1백20만원
△강효식 (치의학57-61)
△김승환 (상학67-71)
△김영도 (축산학68-75)
△김용술 (경제학56-62)
△김주현 (의학65-71)
△김진원 (건축학68-72)
△나명훈 (의학76-83)
△부장렬 (건축학77-81)
△송창기 (중어중문57-62)
△이갑노 (의학65-71)
△이계홍 (농공학56-62)
△이상건 (섬유공학74-78)
△이정우 (AMPFRI 17기)
△이창건 (전기공학49-54)
△조용국 (사회학66-70)
△차왕보 (의학53-59)
△황근영 (생물교육50-54)
◆1백15만원
△이원영 (ACAD 11기)
◆1백14만원
△故남기호 (상학56-62)
◆1백13만원
△홍성욱 (GLP 3기)
◆1백12만원
△이상훈 (법학60-64)
◆1백10만원
△김 현 (법학76-80)
△김금림 (약학62-66)
△김기섭 (정치학69-73)
△김기영 (ACAD 49기)
△김도현 (대학원74-76)
△김동만 (GLP 15기)
△김선복 (건축학62-66)
△김지호 (화학공학55-59)
△도동섭 (화학공학55-59)
△명동근 (경제학45-52)
△문철환 (상학56-60)
△민미란 (국악73-77)
△박영원 (지리학74졸)
△박장순 (기계공학64-68)
△백 철 (상학56-61)
△백낙운 (독어독문56-60)
△변재용 (토목공학75-81)
△송경희 (국악59-63)
△신동승 (법학79-83)
△원우현 (행정학61-65)
△유종일 (신대원72-74)

△유해덕 (법학53-57)
△이경보 (토목공학46-50)
△이근남 (불어불문68-72)
△이두현 (행대원74졸)
△이명훈 (농경제학69-73)
△이정자 (국어국문50졸)
△이종팔 (경영학76-80)
△전계묵 (금속공학56-61)
△전영철 (미학53입)
△조준래 (AMPFRI 12기)
△지근진 (농공학58-64)
△최연근 (중어중문67-71)
△허신행 (농경제학62-66)
△홍성완 (토목공학62-66)
◆1백5만원
△장정만 (의학80-87)
◆1백만원
△강구선 (광산학63-67)
△강규석 (물리교육58-62)
△강덕수 (GLP 8기)
△강성수 (섬유공학57-61)
△강성현 (치의학69-75)
△강영복 (상학51-55)
△강원일 (행정학59-63)
△강정일 (농경제학64-68)
△강종표 (외교학76-83)
△강홍섭 (화학공학59-63)
△고 건 (정치학56-60)
△고병우 (경제학52-56)
△고의식 (수의학56-60)
△고재선 (섬유공학52졸)
△고호근 (AMP 58기)
△구재철 (의학78-84)
△권광중 (법학61-65)
△권순철 (전자공학83-85)
△권이혁 (의학41-47)
△김경동 (사회학55-59)
△김교성 (전기공학51-55)
△김국일 (토목공학63-68)
△김규복 (법학69-73)
△김규형 (약학53-57)
△김기광 (화학교육64-71)
△김기수 (행정학47-51)
△김노수 (섬유공학45-52)
△김달식 (법학53-57)
△김덕영 (토목공학45-47)
△김덕원 (수의학50-54)
△김덕중 (외교학71-75)
△김도연 (행정학58-63)
△김동찬 (생물교육51-55)
△김명자 (화학62-66)
△김방연 (상학52-56)
△김상원 (농경제학52-56)
△김석건 (농경제학50-55)
△김석기 (행정학64-68)
△김석동 (농학62-70)
△김석준 (기계공학72-76)
△김승권 (기계공학68-72)
△김연호 (영어교육67-75)
△김영기 (법학54-58)
△김영배 (농공학78-85)
△김영수 (경제학58-62)
△김영일 (법학60-64)
△김영재 (법학57-62)
△김용식 (건축학70-74)
△김용운 (치의학62-68)
△김용찬 (농화학57-61)
△김우동 (계산통계72-79)
△김유경 (SPARC 2기)
△김윤재 (상학54-58)
△김익모 (AIP 23기)

△김인중 (법학56-60)
△김일환 (전문기상64-72)
△김재락 (법학78-82)
△김정일 (금속공학58-64)
△김종국 (농화학63-70)
△김종덕 (상학55-59)
△김종욱 (경제학58-62)
△김주용 (전기공학58-63)
△김준말 (영어교육55-59)
△김중기 (경제학54-58)
△김진세 (법학61-69)
△김진우 (약학54-58)
△김진호 (법학57-61)
△김창국 (법학56-60)
△김창순 (경성여사범43입)
△김철빈 (토목공학67-71)
△김태현 (제약학71-75)
△김태흥 (화학교육71-79)
△김풍오 (원자력공68-72)
△김학균 (약학51-55)
△김학원 (법학66-70)
△김현재 (법학56-61)
△김형욱 (AIP 37기)
△김형진 (기계공학51-55)
△김혜성 (식품영양70-74)
△김호룡 (법학48-52)
△김홍석 (물리학70-74)
△김홍종 (수학74-78)
△김화중 (간호학63-67)
△김환수 (법학52-56)
△김효종 (법학61-65)
△김후란 (가정교육53입)
△나도선 (약학67-71)
△나종택 (기계공학53-57)
△노승행 (법학58-63)
△노정의 (섬유공학46-50)
△노화준 (섬유공학61-65)
△류종묵 (상학59-65)
△류철호 (토목공학67-71)
△마인경 (지리교육56-60)
△맹호근 (법학61-65)
△문광순 (광산학60-64)
△박국양 (의학75-81)
△박석흥 (불어불문63-67)
△박성숙 (의학65-71)
△박성철 (법학75-79)
△박성태 (의학58-64)
△박순익 (치의학66-72)
△박순호 (AMP 43기)
△박승균 (조선항공63-67)
△박승용 (영어교육76-80)
△박양수 (영어교육55-59)
△박영숙 (CHCN 3기)
△박영철 (AMP 40기)
△박인원 (의학76-83)
△박재형 (의학66-72)
△박종찬 (공업교육71-76)
△박종철 (물리학61-66)
△박준서 (법학58-64)
△박찬중 (불어교육72-77)
△박해룡 (상학58-63)
△박향숙 (응용미술58-62)
△박흥일 (영어교육60-64)
△배기선 (AIP 25기)
△배상경 (경제학56-61)
△배승환 (기계공학58졸)
△배영환 (상학49-58)
△배민준 (철학70-74)
△백형배 (화학공학47-53)
△변영삼 (금속공학77-81)
△변영진 (토목공학67-71)

△변종문 (공업교육72-76)
△서광벽 (재료공학73-77)
△석준형 (물리학67-71)
△설흥기 (대학원07-09)
△설희순 (기계공학62-66)
△손두식 (임학57-63)
△손완주 (화학공학55-59)
△손환규 (농업교육64-68)
△송병락 (경제학59-63)
△송사일 (농공학80-84)
△송언기 (AMP 28기)
△송인상 (경성고상35졸)
△송종환 (외교학64-68)
△송호룡 (AIC 19기)
△신명중 (법학80졸)
△신수정 (기약59-63)
△신용삼 (경영학73-77)
△신원식 (행정학57-61)
△신정균 (농경제학54-58)
△신필재 (약학55-59)
△신현길 (응용물리65-69)
△신희명 (물리교육49-54)
△신희섭 (의학68-74)
△심장수 (법학70-74)
△심재갑 (행정학52-56)
△심한배 (공업화학71-76)
△안상돈 (행정학59-63)
△故안재환 (공예92-04)
△안치득 (전자공학76-80)
△안휘준 (고고인류61-67)
△양해준 (식품공학82-86)
△양호석 (농화학57-63)
△염영섭 (화학66-70)
△염준호 (기계항공95-99)
△여운관 (금속공학53-57)
△오경화 (의류학81-85)
△오세종 (경제학61-65)
△오윤덕 (행정학61-65)
△오인석 (전자공학57-62)
△오진환 (법학75-79)
△오태환 (법학53-57)
△우병규 (정치학51-55)
△우세홍 (생물교육60-65)
△우완식 (경제학57-61)
△우종호 (중어중문60-64)
△우효섭 (토목공학72-76)
△유가영 (기약86-90)
△유광식 (화학58-62)
△유위중 (농경제학72-80)
△유제운 (조선항공51졸)
△유진무 (상학62-66)
△유필상 (전기공학66-73)
△윤근환 (농학50-54)
△윤용철 (경영학83-88)
△윤용혁 (독어교육60-64)
△윤원진 (HPM 6기)
△윤재석 (화학교육71-75)
△윤정혜 (화학교육59-63)
△윤충섭 (농공학55-61)
△윤홍식 (물리교육56-60)
△이 진 (외교학60-64)
△이경재 (화학59-63)
△이계관 (약학70졸)
△이광진 (법학77-81)
△이국진 (경영학77-81)
△이규호 (약학60-65)
△이근수 (신대원69졸)
△이기봉 (교육심리54-58)
△이기준 (경제학55-59)
△이기춘 (가정교육61-65)
△이돈구 (임학65-69)

△이동규(천문기상65-74)
△이동녕(금속공학57-61)
△이미현(법학79-83)
△이병목(의학54-60)
△이병일(농학57-63)
△이병주(의학61-67)
△이삼휘(농화학66-70)
△이상욱(경영학86-90)
△이상필(치의학70-76)
△이석원(AIP 36기)
△이성호(농공학71-75)
△이수웅(전자공학88-92)
△이순형(의학56-62)
△이승관(금속공학64-71)
△이승구(계산통계75-79)
△이승립(국어교육66-70)
△이신자(응용미술50-55)
△이영상(상학51-55)
△이영상(상학59-64)
△이우연(정치학45-49)
△이우진(농화학64-68)
△이의갑(영어교육70-75)
△이인혁(섬유공학54-58)
△이일훈(상학55-60)
△이장무(기계공학63-67)
△이재원(기약53-57)
△이재원(법학77-81)
△이정국(토목공학62-66)
△이정숙(응용미술65-69)
△이정우(독어교육64-71)
△이정인(광산학59-63)
△이종욱(의학57-63)
△이주한(역사교육53-57)
△이중환(의학51-57)
△이진방(경영학67-71)
△이창호(기계공학55-61)
△이철영(상학63-68)
△이철주(상학59-65)
△이충웅(통신공학54-58)
△이학숙(회화54-58)
△이현식(화학73-78)
△이현재(경제학48-53)
△이형균(정치학59-64)
△이형우(수의학51-55)
△이호인(응용화학66-70)
△이희숙(영어교육61-65)
△임광환(농경제학55-59)
△임미영(회화77-81)
△임승빈(건축학67-71)
△임이균(약학61-65)
△임종두(상학61-68)
△장권봉(응용미술56-62)
△장삼진(화학공학51-55)
△장성원(영어교육57-61)
△장원갑(기계공학63-67)
△장윤석(법학68-72)
△장은식(치의학89-93)
△장찬기(HPM 8기)
△장철식(섬유공학49-55)
△장해창(법학74-78)
△장혜실(성악69-73)
△전병일(영어교육66-73)
△전정구(경제학51-56)
△전종갑(천문기상64-68)
△전준수(토목공학61-65)
△전팔근(영어교육47-52)
△정광섭(상학66-74)
△정광현(독어교육71-78)
△정근화(물리교육63-70)
△정명희(의학65-71)
△정민섭(임학59-63)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을!!

일반회원 10만원 · 이사 30만원 이상

△정병일(독어독문78줄)
△정병해(정치학49-53)
△정상조(행정학57-62)
△정소성(불어불문64-69)
△정완호(생물교육58-63)
△정우식(항공공학80-84)
△정웅진(상학63-67)
△정원식(교육학48-54)
△정은구(법학58-64)
△정을삼(의학60-66)
△정정길(행정학61-65)
△故정효섭(사회학59-65)
△정흥숙(가정교육59-63)
△정희준(법학57-61)
△조규광(정치학48줄)
△조대원(법학69-73)
△조동진(행정학63-67)
△조무재(사대원65-67)
△조상래(수의학71-75)
△조성근(행대원61줄)
△조영찬(중어중문74-78)
△조완규(생물학48-52)
△조창환(농학53-60)
△조현래(사회사업73-77)
△주근원(경성제대43줄)
△주남철(대학원69-77)
△주영숙(치의학55-59)
△주정엽(경영학95-02)
△지상구(약학54-58)
△지철근(전기공학45-51)
△진성박(치의학75-81)
△진영춘(토목공학67-74)
△진홍일(외교학62-66)
△차원갑(화학공학48-53)
△최 연(섬유공학68-72)
△최광현(무역학62-67)
△최병순(화학교육69-74)
△최병주(생물교육56-60)
△최영룡(법학78-82)
△최우철(의학82-88)
△최종덕(물리학52-56)
△최종운(의학77-83)
△최종태(행대원66-68)
△최창신(약학61-65)
△최항순(조선공학65-70)
△최효열(기약69-73)
△탁미선희(치의학76-82)
△하두봉(대학원56-58)
△한 영(치의학79-85)
△한규록(의학80-86)
△한정섭(건축학48-52)
△한철주(의학78-84)
△함종환(농업교육63-70)
△허정국(치의학55-59)
△현덕성(약학66-70)
△현임종(상학56-60)
△홍동선(임학56-61)
△홍상희(응용물리65-72)
△홍성오(생물교육50-54)
△홍순겸(AIP 5기)
△황병선(외교학64-71)

△황성재(법학72-76)
△황승기(지구과학69-76)
◆85만원
△양승오(의학75-81)
◆84만원
△오하이오지부동창회
◆80만원
△김재현(경제학69-73)
△문영학(토목공학65-70)
△박남훈(외교학68-75)
△서병규(행대원88-92)
△어 당(섬유공학68-72)
△우두헌(상학61-67)
△유승규(기계설계76-80)
△이인재(지질과학64-72)
△장영일(치의학64-70)
△장원영(경제학72-81)
△정상명(행정학68-72)
◆70만원
△서유현(의학67-73)
△이병효(공업교육63-67)
△이윤하(제약학77-85)
△정원박(대학원74-81)
△정필현(의학82줄)
△조종만(치의학65-70)
△하순봉(독어교육60-64)
△한광세(법학60-64)
◆60만원
△김신원(응용화학64-72)
△부영록(HPM 13기)
△안재후(광산학52-56)
△안태준(기계공학83-91)
△여인철(조선공학75-79)
△유종상(중어중문66-70)
△이범구(물리학69-73)
△이상용(의학64-70)
△이용팔(HPM 13기)
△이정구(의학59-65)
△이찬구(상학56-61)
△이태영(농경제학54-58)
△이현구(화학공학58-62)
△정태봉(작곡72-80)
△조달호(AMP 7기)
△조양래(기계공학64줄)
◆58만원
△김상조(약학54-58)
△이시정(생물교육54-58)
◆50만원
△강 민(금속공학70-74)
△강규범(AMP 62기)
△강승호(수학교육67-71)
△강윤걸(기계공학53-57)
△강인식(농공학79-83)
△강일우(섬유공학71-75)
△강종호(농학60-64)
△곽소진(신대원70줄)
△곽언구(AMP 34기)
△구본무(응용미술60-66)
△권기술(AMP 9기)
△김 농(토목공학69-76)
△김 신(경영학75-79)

△김건중(정치학66-70)
△김공환(행대원68줄)
△김기석(법학59-64)
△김남석(기계공학72-79)
△김당배(경영학70-77)
△김병관(농공학76-80)
△김봉군(국어교육60-64)
△김상도(조선공학78-82)
△김세겸(농공학59-63)
△김수학(물리학53-57)
△김순철(국사학75-82)
△김용주(화학공학73-77)
△김용진(대학원80줄)
△김정근(수의학50-59)
△김정란(불어불문65-69)
△김정우(상학67-71)
△김정욱(금속공학58-64)
△김종호(SGS 4기)
△김지영(식품영양69-73)
△김진국(정치학78-85)
△김진욱(농학52-56)
△김차서(AMP 19기)
△김창윤(수의학53-57)
△김초일(식품영양78줄)
△김항원(사회교육65-72)
△김형탁(APC 3기)
△남시욱(정치학54-58)
△남중희(잡사학56-60)
△류재택(역사교육66-73)
△문학모(경제학58-64)
△민병전(정치학52-56)
△박 찬(정치학75-79)
△박건호(상학59-63)
△박순철(사법학83-87)
△박시우(제약학69-73)
△박양제(약학48-52)
△박용희(상학53-57)
△박일재(화학공학78-82)
△박철홍(AMP 51기)
△박대권(토목공학55-59)
△반성환(농경제학50-55)
△배기성(독어독문68줄)
△부경생(농생물학60-64)
△손계욱(금속공학70-74)
△손문자(응용미술62-66)
△송대원(사법학87-92)
△송임숙(생물교육55-59)
△승익상(의학61-67)
△신동우(언어학71-75)
△신정택(AMP 48기)
△신철영(기계공학70-78)
△신한우(사회교육50-55)
△심문섭(조소61-65)
△양이훈(물리학65-74)
△양흥룡(영어교육71-79)
△염조일(ASP 15기)
△오규원(행정학65-69)
△오병권(조소66-70)
△오자복(행대원82줄)
△오제국(정치학75-79)
△오지연(독어교육87-91)

△우경자(가정교육61-65)
△위정일(의학63-69)
△유석기(경제학57-61)
△유성삼(기계공학59-65)
△유원영(상학57-63)
△유창용(의학82-88)
△유형식(치의학59-65)
△윤 문(광산학61-67)
△윤 백(기계공학78-82)
△윤석용(채광학50-54)
△윤영출(응용미술82-86)
△이강소(회화61-65)
△이경국(농학78-82)
△이근석(산업공학72-76)
△이만섭(치의학57-61)
△이상준(기계공학76-80)
△이상학(경제학59-63)
△이순원(가정교육54-58)
△이신기(농학58-64)
△이육현(제어계측85-89)
△이윤주(상학63-70)
△이은주(간호학90-94)
△이찬영(상학55-59)
△이춘구(생물교육54-58)
△이춘배(의학83-89)
△이평우(불어불문48-56)
△이형직(상학67-71)
△이홍석(농학52-56)
△인정현(법학54-58)
△임병주(금속공학52-56)
△임삼규(금속공학68-72)
△임성규(법학76-80)
△장낙순(SGS 10기)
△장병규(섬유공학54-60)
△장순근(지질과학65-69)
△장희수(AMP 45기)
△정성호(사법학81-85)
△정이조(ACAD 48기)
△정인조(금속공학71-75)
△정태규(수의학56-60)
△정태원(농경제학57-61)
△조남혁(섬유공학57-61)
△조덕찬(상학53-57)
△조수호(회화47임)
△조영욱(가정교육58-62)
△조용철(종교학64-68)
△주중남(기계공학75-79)
△지형준(약학53-57)
△진재철(ACAD 45기)
△채경욱(경영학86-90)
△채기원(수학53-59)
△채방은(기계공학65-70)
△최동수(경영학65-70)
△최병선(조선항공60-64)
△최순철(치의학73-79)
△최운열(경영학70-74)
△최은규(국어교육78-82)
△최창호(사법학84-88)
△최현수(전기공학76줄)
△최흥락(경제학57-61)
△한득추(행정학59줄)

△한상복(물리학59-63)
△한정길(농생물학63-70)
△함준표(경제학79-86)
△흥기정(약학59-64)
△홍석주(경영학72-76)
△홍선표(기계공학53-57)
△황건호(경영학70-74)
△황병국(농생물학66-70)
△황인경(식품영양70-74)
△황정자(가정교육63-67)
△황현익(교대원65줄)
◆45만원
△오봉국(축산학48-52)
◆40만원
△강만식(생물학51-55)
△곽노희(기약81-85)
△김 유(약학60-64)
△김광현(의학66-72)
△김문기(기계설계77-81)
△김은상(경영학74-78)
△김적승(사대원69줄)
△김정묵(농생물학59-65)
△김주영(사법학83-87)
△김형선(법학57-62)
△나덕주(기계공학67-71)
△노선호(AMP 24기)
△목요상(법학55-61)
△故문성철(상학54-58)
△문양수(언어학59-63)
△문창환(기계설계75-79)
△민경식(전기공학50-55)
△박우병(광산학52-56)
△박정부(AMP 61기)
△박창진(보대원70-72)
△사공일(상학58-64)
△서완수(농경제학58-64)
△송복희(응용미술74-78)
△신동수(국사학82-89)
△여효성(대학원03-05)
△연대성(영어교육60-64)
△우보명(임학57-61)
△유기수(물리학53-57)
△유동립(공업교육68-72)
△이계욱(무역학62-67)
△이기상(의학73-79)
△이대원(상학59-65)
△이부영(의학52-59)
△이영욱(법학52-56)
△이재숙(국악59-63)
△이재원(법학76-80)
△이종휘(경영학66-70)
△이철근(조선항공58-64)
△이헌정(임학64-71)
△이혜전(기약79-83)
△이희달(금속공학70-77)
△이희주(가정교육56-60)
△이희주(치의학67-73)
△임갑혁(공업교육69-77)
△임성수(치의학60-66)
△임재원(국악76-80)
△임창무(경제학53-57)
△장만화(경제학56-61)
△장정환(정치학56-63)
△전광우(경제학69-73)
△정강주(체육교육69-74)
△정건용(치의학52-57)
△정문성(의학78-84)
△정송학(ACAD 54기)
△정수현(교육학80-84)
△주영재(공업교육72-76)
△최상태(행정학58-64)

△최성규(국사학92-99)
△황정운(의학54-60)
◆35만원
△김정구(의학70-76)
△모영일(AFB 5기)
△우성규(사학63-70)
◆31만원
△황규준(AIC 14기)
〈이상 2005년 10월 1일
부터 2010년 7월 19일까지
출연해 주신 분〉

◆30만원
△간영석(법학57-61)
△강 건(의학60-66)
△강남원(기계설계75-81)
△강대운(회화55-60)
△강만수(법학65-69)
△강명영(AIP 20기)
△강민창(신대원68-70)
△강부건(건축학62-69)
△강수현(상학58-62)
△강승림(지리학62-66)
△강신우(법학79-83)
△강신일(의학58-64)
△강신자(작곡56-60)
△강영삼(사회교육59-63)
△강의철(건축학73-77)
△강진영(의학67-73)
△강창수(조선공학48-53)
△강태석(상학51-55)
△강태형(법학57-61)
△강해석(제약학71-78)
△강호익(토목공학58-64)
△고건성(의학67-74)
△故김원태(법학61-65)
△故노형민(기계설계77졸)
△고명삼(전기공학51-55)
△고상언(AIP 11기)
△고승혜(회화66-70)
△故심재덕(잡사학57-63)
△故안임수(영어교육69졸)
△고영곤(농경제학66-70)
△고영희(건축학77-81)
△故윤승하(조선공75-79)
△故이원성(전자공77-81)

△고재홍(자원공학75-82)
△고정택(외교학62-66)
△고충삼(행대원63-65)
△공영석(약학57졸)
△공영주(약학59-63)
△곽광준(SGS 14기)
△곽노준(법학74-78)
△곽영철(농공학59-65)
△곽현수(법학72-76)
△구본무(농공학62-66)
△구성화(보대원67-69)
△구인환(국어교육50-54)
△구자영(조선항공54-58)
△구자희(법학77-83)
△국전표(토목공학60-66)
△권기진(HPM 8기)
△권문구(법학60-66)
△권영수(경영학75-79)
△권오걸(철학72-82)
△권오균(경제학49-53)
△권오득(사회사업63-68)
△권오윤(법학56-60)
△권오준(임학65-69)
△권장혁(항공공학67-71)
△권태웅(경제학58-64)
△권태호(임학74-78)
△금명자(간호학76-80)
△금중해(수학76-80)
△김 랑(농공학63-68)
△김경화(건축학65-69)
△김관영(화학교육55졸)
△김광순(약학59-63)
△김광식(화학59-63)
△김광호(농학61-65)
△김광희(작곡68-72)
△김구수(의학71-77)
△김구웅(수학57-63)
△김권택(법학63-67)
△김규상(화학57입)
△김규호(약학64-72)
△김근배(조선항공64-68)
△김금환(건축학72-77)
△김기락(의학68-76)
△김기주(사학54-58)
△김기중(상학57-61)
△김남수(물리학73-77)
△김남용(축산학53-57)

△김남조(국어교육47-51)
△김대기(외교학65-69)
△김대환(기악89-93)
△김덕수(섬유공학51-55)
△김덕창(중어중문59-63)
△김동녕(경제학64-68)
△김동암(축산학52-56)
△김동완(행대원83-88)
△김동원(법학52-56)
△김동철(독어독문78-82)
△김만경(경제학53-57)
△김만복(법학66-70)
△김명근(건축학53-57)
△김명년(토목공학53-57)
△김명린(조선항공61-65)
△김명석(요업공학74-79)
△김무현(건축학61-65)
△김미리(간호학55-58)
△김민영(사학68-71)
△김병국(의학64-70)
△김병기(광산학65-69)
△김병동(농학62-66)
△김병준(지구과학68-72)
△김병찬(치의학69-75)
△김복순(간호학55졸)
△김복승(APC 3기)
△김봉호(치의학56-60)
△김부성(지리학73-77)
△김상국(농학51-56)
△김상근(법학78-82)
△김상기(국어교육65-69)
△김상진(기계공학63-68)
△김상현(ACAD 27기)
△김상호(중어중문58-62)
△김상희(법학69-73)
△김서령(수학교육78-82)
△김석수(자원공학77졸)
△김석웅(대학원81졸)
△김석주(조선항공48-54)
△김선양(교육학53-57)
△김선일(국어국문61-65)
△김선홍(기계공학55졸)
△김성길(법학60-64)
△김성만(금속공학57-61)
△김성수(치의학67-74)
△김성우(전기공학59-63)
△김성중(광산학59-66)

△김성진(식품영양69-73)
△김세재(동물학85졸)
△김세진(치의학67-73)
△김소함(기악77졸)
△김수관(생물교육70-78)
△김수필(경영학62-66)
△김승규(SGS 7기)
△김승호(법학62-66)
△김신택(법학57-62)
△김영규(경제학55-59)
△김영대(SGS 12기)
△김영무(법학60-64)
△김영상(법학54-59)
△김영철(건축학59-63)
△김영한(사학62-66)
△김영훈(행정학54-59)
△김완주(정치학66-70)
△김용구(농학57-61)
△김용균(법학73-77)
△김우전(AMP 7기)
△김원길(경제학61-68)
△김원동(의학63-69)
△김원배(토목공학55-59)
△김유원(신대원72-74)
△김유인(농생물학63-70)
△김윤영(치의학58-62)
△김윤종(AIP 31기)
△김응진(대학원49졸)
△김익영(행대원68졸)
△김인수(치의학47-51)
△김장연(공업화학76-80)
△김재길(법학56-60)
△김재덕(법학73-77)
△김재실(수학63-68)
△김재철(법학57-61)
△김재철(상학60-66)
△김재훈(법학76-80)
△김정근(기계공학57-61)
△김정문(지구과학70-77)
△김정민(AFB 2기)
△김정석(공예89-93)
△김정자(치의학59-65)
△김정희(간호학52-55)
△김제영(건축학71-76)
△김종만(의학51-59)
△김종민(AMPP 4기)
△김종식(기계공학77-84)

△김종연(ACAD 29기)
△김종욱(섬유공학61-65)
△김종일(법학52-56)
△김종진(물리학58-62)
△김종훈(건축학69-73)
△김주봉(수학교육54-58)
△김주일(의대전문44-48)
△김주호(전기공학58졸)
△김주환(치의학47졸)
△김진동(국어국문58-64)
△김진문(경제학59-64)
△김진석(농업교육69-75)
△김진영(건축학68-72)
△김진우(경제학59-63)
△김진우(행정학57졸)
△김진철(항공공학67-72)
△김찬우(수리과학01-06)
△김찬조(농화학49-54)
△김창복(법학51-55)
△김창성(원예학81-88)
△김창세(화학공학61-65)
△김창수(상학66-70)
△김창식(사대원67-69)
△김창호(산업공학72-76)
△김천수(생물교육63졸)
△김철수(경제학77-81)
△김철중(물리학70-74)
△김철진(법학50-58)
△김충경(약학65-69)
△김충식(독어교육60-64)
△김탁현(농학65-69)
△김태두(경제학50-56)
△김태수(영어영문57-64)
△김태수(지질과학62-66)
△김태완(ACAD 44기)
△김태우(법학73-77)
△김태훈(토목공학72-76)
△김태희(금속공학65-69)
△김하준(과학교육73-77)
△김학근(법학75-79)
△김학기(농생물학65-70)
△김학순(의학74-80)
△김한길(약학59-63)
△김한주(약학57-61)
△김현수(농학55-62)
△김현순(법학54-58)
△김현욱(약학84-88)

△김형배(행정학51-55)
△김형영(경제학56-60)
△김혜삼(AMP 51기)
△김호수(금속공학63-67)
△김홍석(치의학57-61)
△김화규(물리학52-56)
△김희상(외교학69-73)
△김희수(화학교육70-75)
△김희주(의학71-77)
△나병삼(지리교육64-68)
△나형용(금속공학54-58)
△남대우(경제학58-64)
△남송현(의학70-78)
△남승우(치의학63-69)
△남창렬(화학교육65-69)
△남혜숙(회화62-66)
△노갑기(영어교육66-70)
△노경래(법학61-65)
△노연상(화학공학70-74)
△노희찬(ACAD 33기)
△도준호(철학61-65)
△류시열(법학57-61)
△류해주(상학65-69)
△류희근(HPM 4기)
△명로승(법학65-69)
△문동민(화학공학57-61)
△문병원(잡사학55-60)
△문영도(경제학50-59)
△문운용(상학60-65)
△문원호(약학65-69)
△문철명(축산학60-68)
△문헌일(AIC 6기)
△문형근(대학원79-81)
△문홍장(경영학74-78)
△신용하(사회학57-61)
△윤용희(한대원81-85)
△임의택(사회교육54-57)
△채규남(건축학49-54)
◆20만원
△박용호(수의학74-78)
◆10만원
△고병준(SGS 22기)
△문성환(보대원95-98)
△설균태(행대원88-90)
〈이상 2010년 6월 24일
부터 7월 19일까지 출연해
주신 분〉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2010년 6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10. 6. 22~7. 12)·일반(10. 6. 22~7. 12)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부회장 李吉女= 1백만원
△부회장 李海遠= 1백만원
△부회장 朴熙伯= 1백만원
△부회장 李垞鎔= 1백만원
△부회장 金讚淑= 1백만원
△부회장 孔大植= 1백만원
△부회장 洪性大= 1백만원
△부회장 禹仁性= 1백만원
△부회장 朴成勳= 1백만원
△부회장 姜寅求= 1백만원
△부회장 劉常夫= 1백만원
△부회장 朴浩田= 1백만원
△부회장 金仁圭= 1백만원
△부회장 張重桓= 1백만원
△부회장 鄭忠始= 1백만원
△부회장 金映宣= 1백만원
△부회장 鄭八道= 1백만원

관 악 회

△이 사 安聖哲= 30만원
△이 사 張世一= 30만원
△이 사 朴明濶= 30만원
△이 사 金秉順= 30만원
△감 사 金一燮= 30만원

상임이사

△金靑弼 자연대동창회장= 20만원
△金慶漢 법대동창회장= 20만원
△禹敬子 생활대동창회장= 20만원
△李角模 수의대동창회장= 20만원
△徐桂淑 음대동창회장= 20만원
△李文漢 대학원동창회장= 20만원
△金英大 前경대원동창회장= 20만원
△鄭喜鎔 AIP동창회장= 20만원
△崔炳五 AFB동창회장= 20만원
△申一汕 AMPFRI동창회장= 20만원
△徐綜都 ACPMP동창회장= 20만원
△李鍾大 GLP동창회장= 20만원
△金權震 SPARC동창회장= 20만원
△柳東林 관악무역인회장= 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강 완 사대71
△강민구 行院62 △강성순 음대69
△고광일 공대80 △고장순 大院60
△구요한 농대63 △구용호 SGS18
△권성진 사대77 △권정선 HPM21
△권현옥 약대79 △금병찬 AIP32
△기 준 공대65 △기창돈 공대80
△김갑용 문리69 △김광옥 ASP12
△김기영 법대85 △김기웅 의대85
△김민석 의대91 △김삼종 SPAR13
△김선양 사대53 △김성윤 공대88
△김수환 사대77 △김영권 경영80
△김영균 치대80 △김영만 AMP59
△김영수 공대78 △김영윤 공대62

△김용태 사회91 △김종욱 약대66
△김주달 농대64 △김중겸 인문67
△김장시 공대83 △김한기 경영83
△김해식 AIP38 △김호철 의대83
△김홍일 법대80 △나근형 사대58
△나기웅 GLP10 △노웅래 공대85
△노흥준 ACAD29 △류성호 약대75
△민경갑 미대53 △민병립 사회71
△민병훈 공대81 △민재홍 공대74
△박대순 미대49 △박용립 경영73
△박윤근 의대87 △박재규 공대56
△박종형 AMP9 △박찬종 사대72
△박창환 AIP38 △박혜경 인문84
△백몽민 의대77 △백승혜 생활78
△서민호 자연81 △서상오 공대77
△서일성 ALP6 △서정기 치대60
△서진수 의대83 △성우경 공대86
△손화현 SPAR14 △송병호 의대86
△송종환 문리64 △신경수 농대84
△신혜순 사대47 △안경희 AMP65
△안재동 GLP18 △양석승 AMP63
△엄병윤 문리60 △오순택 AMP30
△오승환 AMP63 △오연상 의대75
△오종환 법대83 △윤도식 법대85
△윤동선 GLP17 △윤삼기 AIP36
△윤성석 GLP8 △윤영호 AMP11
△윤재수 공대87 △윤혜숙 약대62
△이경덕 문리66 △이경은 음대74
△이계탁 行院72 △이기수 大院70
△이만순 상대57 △이민규 의대86
△이민찬 법대55 △이범창 공대52
△이병호 치대90 △이상규 문리65
△이상룡 공대50 △이상조 ASP11
△이세복 약대64 △이수철 공대76
△이순걸 자연79 △이신두 자연76
△이영만 HPM14 △이영진 공대84
△이용호 AMP51 △이유현 치대90
△이장호 치대75 △이재환 SPAR15
△이종철 AIP41 △이종휘 상대66
△이종원 공대70 △이형근 법대89
△이희주 치대67 △임동욱 치대66
△장 영 의대91 △전용범 자연81
△정광선 문리64 △정병채 인문82
△정상명 법대68 △정성배 사대74
△정제훈 자연81 △정태봉 음대72
△정태전 경영86 △조기식 공대76
△조달호 AMP7 △조철원 인문76
△차준용 인문91 △최광주 ACAD55
△최낙민 ASP16 △최병국 법대61
△최상훈 공대71 △최승주 공대56
△최은숙 간호85 △최창무 법대83
△최철구 공대66 △최하경 공대79
△최효열 음대69 △한원일 치대87
△허현호 사대71 △홍대형 공대65
△황건식 농대63 △황성혁 공대58
△황윤식 공대90 △황해근 공대54

〈일반〉 △강효창 법대01
△경 산 공대05 △고송희 國院04
△공종식 GLP10 △구의서 공대91
△구중수 行院04 △구태균 자연04

△권형옥 농대88 △김경수 HPM22
△김명주 법대87 △김명희 음대64
△김서규 AIP40 △김서진 약대59
△김성우 법대88 △김세훈 인문00
△김예슬 사대04 △김용각 ACPM1
△김인권 SPAR16 △김진주 생활06
△김창기 사회74 △김흥수 인문82
△단혜향 미대71 △박대영 ABP30
△박봉배 사대49 △박선미 의대84
△박영미 사대75 △박영석 사회95
△배대연 법대71 △설영식 경영79
△성준용 공대67 △송용상 상대56
△신수정 공대03 △신진철 농대72
△신창훈 사회80 △신철진 의대85
△안준하 법대98 △안지연 사대87
△양승욱 의대06 △양혜정 약대83
△오귀진 공대65 △오용규 법대92
△우정엽 경영90 △위인숙 문리71
△윤정현 공대86 △이교상 공대66
△이민성 의대06 △이범희 공대84
△이상준 공대02 △이인영 사회03
△이재원 공대97 △이정구 공대60
△이정렬 법대87 △이정우 농대82
△이창우 문리55 △이태환 사회94
△임의택 사대54 △임정욱 공대00
△전 평 AMP67 △정희건 사회01
△조경훈 의대75 △조용란 사대55
△최동재 약대78 △탁혜경 사대79
△히주완 공대00 △한규남 의대00

이 사

◆인문대 △강현구79 △김병철76
△류 진78 △박태영74 △변원일67
△소대봉84 △오세중79 △오정택82
△윤상필84 △윤재인80 △이숙희80
△이택기75 △임운택72 △최규식73
△최태영76 △홍성운73 △홍준선75
◆사회대 △강동호82 △구영수70
△김 영79 △김광영82 △김대희81
△김수영82 △김진국78 △김찬규76
△김형민76 △노정석87 △박재완73
△박민식84 △박병룡80 △박재완73
△박재하77 △박찬욱72 △박홍배87
△변성윤91 △변창률75 △서동원75
△성은식76 △손도일86 △이상희77
△이승훈74 △임규욱79 △임유철84
△장원영72 △전승철81 △정금채71
△정응균87 △조병철73 △주진혁77
△최금락76 △최범수75 △최익순73
△홍병교78 △황기호77
◆자연대 △강인숙83 △김규중72
△김남수73 △박송용74 △박종희82
△송세안75 △염원근77 △유건호78
△이경수75 △이병홍66 △이창복68
△이현식73 △장만재80 △전승준74
△한창우75 △현택환83 △홍광현77
△홍병준83
◆간호대 △김미애82 △성송현74
△성순희71 △이선자61
◆경영대 △구지일86 △기준능80
△김상범78 △김석호77 △김선구73

△김수환82 △김영기73 △김홍섭79
△류재욱87 △박기준85 △박기환69
△박훈기81 △반용음77 △서정희78
△송영태69 △신동환78 △신용삼73
△이영민83 △이재영78 △임근상80
△채경옥86 △황수연72
◆공대 △강명수40 △강경일75
△강구선63 △강남식73 △강동균80
△강순옥53 △강승목64 △강익철73
△강준우76 △고재홍75 △곽삼영51
△곽호상82 △권명옥76 △권익현69
△기중식77 △김경호75 △김경화65
△김광옥56 △김교성51 △김국진66
△김국호65 △김군희67 △김대모61
△김동필76 △김명근53 △김명석74
△김명호74 △김병열72 △김상우81
△김석주48 △김성년68 △김성철70
△김성철73 △김성환66 △김영길60
△김영수58 △김영중76 △김원배55
△김윤수75 △김인규85 △김정기68
△김제영71 △김종광68 △김종식77
△김종찬54 △김주호58 △김진근71
△김진원68 △김창석65 △김철수70
△김태원55 △김태준57 △김태형83
△김한섭68 △김형남60 △남일순81
△노병환76 △노태욱69 △노태전69
△모종환01 △문영학65 △문찬국73
△민병선55 △박금철48 △박기찬64
△박동서61 △박병학69 △박상덕71
△박상호76 △박세형73 △박용준52
△박익승73 △박일재78 △박재기52
△박재원82 △박창용66 △박태원49
△박태훈78 △박호견69 △박홍철51
△배무현72 △배영호63 △배재흠70
△백만기72 △백승욱58 △백승환71
△백형배47 △변동필75 △변응현66
△서원수69 △서우원61 △서일홍73
△서형상71 △석현수72 △선우중호59
△설영화65 △설원길48 △설재훈74
△설재훈74 △성기조51 △성낙현67
△성백문83 △송배원75 △송부호61
△송우길84 △신건일63 △신근식66
△신덕철68 △신선호66 △신성수79
△신양호71 △신원기66 △신창수81
△안기원70 △안수길50 △안순신69
△안재휴52 △양배근82 △염사연64
△오성환59 △원정수53 △유관섭78
△유기춘65 △유병철42 △유재운78
△윤 백78 △윤기준69 △윤병화58
△윤세한79 △윤재석59 △윤준호70
△이강우79 △이계수63 △이계환62
△이관수68 △이근명63 △이명호53
△이범호54 △이병락68 △이봉환68
△이상준64 △이석준83 △이성원58
△이승종70 △이영길74 △이영우79
△이영재69 △이운형65 △이원도59
△이장무63 △이종현47 △이종호59
△이주범56 △이주선64 △이준혁85
△이중성61 △이진우80 △이창갑46
△이충덕69 △이충수54 △이태동64
△이태수77 △이한정81 △이홍중67
△이환범56 △이환렬75 △임기석63

△장광훈78 △장동욱49 △장원일73
△장지영75 △전도영80 △전상백53
△정명식50 △정순천66 △정익주68
△정재근74 △정조섭56 △정철수71
△정태영75 △정한모71 △조경식81
△조광연70 △조규남72 △조덕상66
△조백현85 △조선휘50 △조영주74
△조철형74 △조택호61 △지 순54
△지인호76 △진영준67 △차금렬59
△최 연68 △최기언71 △최낙삼77
△최상호64 △최영식50 △최재열69
△최효범77 △편도권64 △한관수73
△한상명78 △한영호69 △홍성완62
△홍호식69 △황대석58 △황은식73
△황이선63 △황종구56
◆농대 △강철기76 △공홍표78
△권명구68 △권오준65 △김근영65
△김동태62 △김사일53 △김삼국51
△김상도69 △김성태64 △김영섭65
△김윤배61 △김정규65 △김정묵59
△김진석69 △김태영82 △김홍배81
△김훈동63 △남성우69 △목세균63
△문철명60 △민옥기73 △박노환86
△박래경51 △박종주66 △박찬영80
△박창용65 △박형만75 △배기식54
△배정길61 △백창영69 △부경생60
△사공문72 △서득성58 △서정근59
△석준호55 △송사일80 △송한용83
△신해상66 △안수구73 △양준식82
△오봉국48 △오세인55 △유 석59
△유성근63 △유용률66 △유원형70
△유이종71 △윤여두67 △윤오섭48
△윤재수63 △윤희진63 △이경국78
△이도경56 △이동선73 △이무근60
△이상걸79 △이상용61 △이상하56
△이석영71 △이영호65 △이원규58
△이원덕80 △이윤호68 △이혜근67
△임병주65 △임형백89 △장정수64
△정봉진73 △정진구65 △조선종84
△차성윤57 △채수근54 △채제전64
△최찬식56 △허영주83 △한정남65
△한정식71 △허길행65 △허현철80
△홍현주73 △황무돈61
◆문리대 △고 건56 △고광용60
△고영소56 △구태회46 △구평희47
△권병두65 △권안도71 △김 명67
△김관식56 △김광식59 △김규상57
△김기주54 △김대성61 △김덕중71
△김덕창59 △김두희52 △김문환64
△김병익57 △김상복57 △김상하45
△김승국56 △김영순71 △김영일62
△김재민67 △김종하53 △김치수60
△김현출62 △김홍철60 △남기민69
△류종탁56 △민영기57 △박근우61
△박무종66 △박석홍63 △박영원74
△박용길66 △박흥식66 △변 형61
△송규정63 △송진혁61 △신상우64
△신정용61 △안취준61 △엄영진63
△오거돈67 △오재희53 △우성규63
△유보일60 △윤명중53 △윤상철55
△윤석현46 △윤홍근63 △이경형66
△이광찬58 △이남기50 △이대승66
△이병형67 △이상무61 △이수홍49
△이영록66 △이용태53 △이용화53
△이원영69 △이재형65 △이종무58
△이종한62 △이종희54 △이효원69
△임의신62 △임형택62 △임희섭55
△장영수63 △장정환56 △정무호61
△정목자61 △정의용64 △채영수68
△천상덕71 △최경락71 △최서영54
△표완수67 △허영기44 △한우석51

△한태길69 △허운옥57 △홍종웅65
△홍치모52

◆미대 △강인선73 △김 태51
△김민기69 △김연수76 △김제응60
△노숙자62 △성기점58 △손대홍79
△오성진83 △이영진54 △이주숙70
△전영철53 △조정송59

◆법대 △강 훈72 △강대신63
△강만수65 △강병섭68 △강석훈82
△강신원72 △강영규48 △강용구52
△강용석88 △강재철77 △강현안74
△강희철81 △고광우53 △곽노준74
△구만회76 △권연상58 △권영상75
△권오윤56 △권은민82 △권혁채60
△김 석72 △김관재71 △김기인58
△김덕주52 △김도연58 △김동원52
△김동호56 △김병국66 △김복학70
△김석기64 △김선환66 △김영대61
△김영상54 △김영우56 △김영일60
△김영태84 △김용철46 △김용환60
△김용환72 △김우진83 △김유동86
△김윤성76 △김의재56 △김이수72
△김익하60 △김인겸82 △김인중56
△김재덕73 △김재호51 △김정일60
△김정후57 △김종훈83 △김진관71
△김진우57 △김창엽64 △김철수52
△김태현46 △김태현74 △김학의76
△김현산54 △김현석79 △김현순54
△김형선57 △김형수77 △김홍현67
△김홍걸70 △김희주84 △나정욱59
△노신영50 △류시열57 △민병국57
△민수명60 △박경보70 △박동완64
△박무용64 △박부찬56 △박성귀71
△박성철75 △박순백66 △박영수52
△박영현69 △박용상63 △박원진51
△박윤흔55 △박익환81 △박인수57
△박재경57 △박재권66 △박정규57
△박정수84 △박준서58 △박철근55
△박철언61 △박충근68 △배 도53
△배동전86 △변 욱57 △변동걸66
△변재일59 △서경석67 △서규영79
△서돈양56 △서상수80 △서상희68
△서원태67 △서정신58 △성백현78
△송병대67 △송진훈59 △신동희74
△신명균62 △신상규68 △신성철65
△신인식74 △신장순47 △신정철52
△신현무58 △신현일77 △심명수63

△심상철76 △심우영59 △심재갑52
△안용득62 △안재호87 △안종윤51
△여상훈75 △염동신84 △오경락54
△오복동57 △오석준80 △오지철69
△유기준78 △유원규71 △윤경희65
△윤덕순59 △윤일영52 △윤준원67
△이건개59 △이건종72 △이근식65
△이기배71 △이대경77 △이대순53
△이동흙68 △이두용54 △이병석54
△이복영66 △이상우57 △이석희51
△이선우61 △이성호76 △이세복61
△이세훈55 △이영범59 △이영준57
△이외수63 △이원호61 △이인표54
△이재방78 △이재원77 △이재철77
△이정락58 △이종순57 △이준보80
△이춘성74 △이충호68 △이태운68
△이현승67 △이회창53 △이효종59
△임 경78 △임규운53 △임인택58
△임태유59 △장병규53 △장부용59
△장세두59 △장운영85 △장창호63
△전병식70 △정덕장59 △정덕흙68
△정우모56 △정정길61 △정지형58
△정한상50 △정해주63 △정휘위62
△제차릉60 △조동주53 △조해근78
△지관엽75 △지홍원58 △차수명58
△채 윤78 △채동욱77 △천인수59
△최광물54 △최근선54 △최기정60
△최병구67 △최세관54 △최신석59
△최연희64 △최창호84 △한 민77
△한이봉83 △홍경용49 △홍세렬80
△홍진태52 △황병인54 △황보경석50
△황보중74 △황봉환73 △황영구75
△황영목70 △황영선55 △황의인74
△황이연55 △황창섭53 △황희철77

◆사대 △강봉근67 △김경수60
△김기광64 △김병무64 △김상구60
△김성대59 △김영국69 △김영삼73
△김영진51 △김종필46 △김진규58
△김찬규83 △김충언58 △김태완67
△김학희73 △김항원65 △김혜경70
△김희수70 △민경현53 △박강문63
△박병기81 △박영민62 △박영배65
△박익두64 △박종달49 △박종세55
△박형준64 △박화엽64 △백승권53
△변재익65 △송태성64 △송호열79
△신동철59 △신인식73 △신하영58
△안지원81 △안창섭61 △양남식73

△오두범64 △오윤용60 △왕문용66
△우근용65 △유덕준60 △윤규태65
△윤익모62 △윤재석71 △이광희66
△이노연58 △이명천68 △이복환70
△이상요74 △이순권61 △이안기71
△이원호68 △이정식72 △이종승65
△이주환53 △이준동60 △이홍식68
△이환기81 △이환의54 △이희호46
△임광수68 △임창선72 △임창원66
△임향순60 △전성탁54 △전용근73
△전의숙68 △정광삼58 △정귀생58
△정기언72 △정상윤74 △정용길77
△정원식48 △정응근63 △정재정70
△정준섭61 △정희성82 △조용복55
△주기성72 △최기숙65 △최돈형68
△최병주56 △최병환70 △최은규78
△추인호71 △한도연49 △허영섭74
△형남규67 △홍철근70 △황승기69

◆상대 △강승구65 △강원구54
△계준혁48 △고일성54 △곽윤광60
△구정화57 △권영식66 △권영정72
△권오규71 △권희구56 △기병태53
△김경모61 △김기중57 △김대중66
△김동녕64 △김만우67 △김부규56
△김상희66 △김석규53 △김성규57
△김연배64 △김영식66 △김영환54
△김완기46 △김용근65 △김원길61
△김정우65 △김종국55 △김종호54
△김준식66 △김중석65 △김창수66
△김창수68 △김창진58 △김철영70
△김태두50 △김형만52 △김호식71
△나진원67 △노인환54 △맹정주67
△문운용60 △문철한56 △민경재50
△민병관70 △민형동71 △박길부59
△박수환55 △박영조61 △박종민64
△박태일60 △배철호68 △백장기61
△변병주60 △사공일58 △서주성44
△서충석71 △손석주46 △손희균46
△신명수60 △신명호46 △심재석64
△안태호45 △어 준57 △엄수명61
△오강욱56 △우두현61 △우순구53
△우완식57 △유연근70 △유영일53
△유원영57 △윤영석58 △이관규61
△이국희56 △이균재48 △이상근53
△이상락64 △이세근63 △이용진68
△이일훈55 △이재규65 △이재욱65
△이정복54 △이준용56 △이태형59

△이한희54 △이항철54 △이현락62
△이호유54 △임종두61 △장만화56
△장명섭49 △장무환45 △장윤문65
△장종록57 △전창수57 △정병호53
△정상근68 △정주호65 △정태욱62
△조대연45 △조덕찬53 △조원래57
△조중현62 △진영욱70 △최경식59
△최도성70 △최동건70 △최부완54
△최수일55 △최현기68 △한병무59
△한찬수54 △홍면후46 △홍영극60
△황규백63

◆생활대 △고영숙70 △문영실81
△박복순70 △이미숙74 △전임효81
△정대숙80 △정현희72 △홍영희73
◆수의대 △구연강62 △김보원63
△김상돈44 △김성수64 △김창윤53
△김택수55 △문 웅64 △박영찬81
△박희춘66 △방극승64 △신도균81
△신형철82 △염영호77 △윤화중54
△이도필49 △이재철52 △장치훈70
△정홍보75 △최병일59 △최수호75
△한정희79

◆약대 △강 서58 △강석진55
△김규호64 △김길수60 △김명수71
△김상수66 △김선중61 △김수경57
△김영란76 △김영택58 △김우영67
△김재환68 △김진우54 △김진훈71
△김충경65 △노동출78 △문원호65
△박대창69 △박시우69 △박준석63
△서석수51 △손인자69 △송창진54
△신현학56 △신화범50 △심규장70
△안병욱68 △엄 향81 △오성환60
△오유경82 △오응준58 △우중균61
△윤병길71 △윤승모56 △이기평60
△이규호60 △이도경83 △이용연72
△이우영71 △이형규74 △임경택52
△임상웅60 △임종석78 △정순간58
△정현경83 △조영준69 △조정식62
△진 강56 △차기현59 △최근욱74
△최선식64 △최종수82 △한정연85
△홍기정59

◆음대 △강덕원69 △김미경69
△김인규65 △김혜중69 △민미란73
△손국임64 △유신선79 △이경숙50
△이동남66 △이명희68 △이오규70
△이주연86 △이창수67 △임재원76
△장재흥57 △전민숙66 △조창연66

△차정현67 △최승준65
◆의대 △강신호46 △강일태74
△강재훈88 △강진영67 △강형룡44
△고건성67 △김규환76 △김동수83
△김동은52 △김동진68 △김명주56
△김병식82 △김병찬53 △김병천65
△김상은77 △김세경39 △김은경90
△김응중78 △김종숙77 △김진조45
△김진호75 △김태규76 △김환규78
△남도현84 △노상권81 △류지근85
△문성무60 △박경덕80 △박동현70
△박문갑46 △박상용57 △박성숙65
△박성태58 △박세용76 △박양희70
△박영수59 △박영태70 △박용재65
△박이태72 △방성호66 △백낙환44
△백태진74 △선덕영49 △선우대활71
△손봉기73 △심달섭45 △심영보55
△심웅석59 △안윤옥66 △유병훈67
△유재란64 △유지문54 △유태연54
△윤광선68 △윤세희68 △이강진74
△이건용69 △이계영59 △이관희75
△이상근73 △이수철71 △이순형56
△이승덕83 △이승규67 △이시영82
△이의용72 △이진용59 △임승운74
△장돈식56 △장성근71 △장윤석49
△전성환74 △정규병65 △정명관91
△정유조85 △정운재75 △정필현82
△조경환52 △주근원43 △지삼봉55
△최경진68 △최규완55 △최동수54
△최세준53 △하재동51 △하재인44
△한규섭72 △한두진50 △한병채58
△한중수71 △함의근52 △허봉열60
△홍영수66 △홍영식61 △홍창의45
△황정운54

◆치대 △강근수63 △강대준62
△김경애57 △김경욱70 △김규진64
△김기국64 △김기현56 △김병찬69
△김봉호56 △김성룡58 △김수남59
△김윤영58 △김정자59 △김종우71
△김지호59 △김체중68 △김충배72
△김태의60 △김현풍60 △김홍석57
△남용욱51 △류남순70 △민병덕64
△민병희74 △박행운56 △방수남62
△부삼환58 △손 근71 △손일수71
△송명욱86 △송영호57 △송학선70
△신덕재68 △신일규65 △안효일58
△양원식57 △양희일56 △연태호81

△우진오72 △유동환77 △유병도56
△유태영63 △이병우76 △이복삼81
△이영대70 △이원재72 △이윤상59
△이재윤76 △이준규66 △이진걸77
△이진근63 △이창우75 △이하진89
△이한무65 △전태수56 △정건용52
△정광현58 △정재영70 △정종선57
△정행남62 △조성복55 △조인호70
△조행작64 △주낙림56 △천옥진80
△최성근65 △한성훈60 △한수엽80
△허노정67 △허연욱55 △허준규66
△홍성호60 △황의강61 △황치일77
◆대학원 △권혁길78 △김무한79
△김신섭84 △김재경85 △김정권79
△김준호86 △박복만66 △박종열71
△신호수85 △윤옥경75 △이시목52
△이시운81 △임유택87 △전용기82
△정우남81
◆경대원 △김윤택68 △박원봉68
△양승현71 △양희석86 △이병재69
△장몽인66 △전도진70
◆보대원 △구성화67 △김병환65
△민병찬75 △박순영63 △박종안72
△신석우65 △오장수89 △윤철종87
△이규현63 △조경복92 △최치원97
◆사대원 △김창식67 △송정호66
△신웅식66 △이근웅70 △이원성67
△정경식63
◆신대원 △김우룡71 △김태문71
△김희옥76 △조용직70
◆행대원 △고충삼63 △김상돈79
△김상영65 △문화갑66 △배문환63
△양석호67 △윤영84 △윤일균69
△이영태72 △장준규65
◆환대원 △김경윤79 △박경자76
△박상락84 △박형석74 △이재근79
△조낙건81 △황학래74
◆AMP △고희선41 △곽언구34
△권영선3 △권오석61 △권용관58
△김득식57 △김을재45 △김익현52
△김철한3 △문해란45 △박상규31
△박석휘52 △박소범23 △서석해40
△서종덕12 △성영창26 △성환옥18
△손창수41 △송언기28 △신성우32
△신현규57 △신희철57 △오병제21
△이경일61 △이근호52 △이대영67
△이세락45 △이재형59 △이현구52

△장영준62 △장희수45 △정남연21
△정영대48 △조법선53 △조시연57
△홍완기27 △황복현45
◆AIP △강명영20 △김성길7
△김수영12 △김승겸16 △김윤종31
△김후근17 △박만홍38 △박영식28
△박용진35 △안정환11 △양명9
△예상호8 △윤명수30 △윤한동24
△이대만24 △이덕영23 △이병호28
△이석준27 △이의현20 △이창규11
△전종선34 △조규승20 △조홍구18
△추현식32 △한승욱27
◆ACAD △강남주56 △공윤희47
△관상문45 △김성은30 △김성조54
△김종웅39 △김창식45 △김찬환27
△김태완44 △박영순43 △배윤도54
△송봉식52 △오종태38 △이강국63
△이달화24 △이상영40 △이영태55
△이희수49 △조건장49 △조진형36
△최종욱20
◆ABP △고경일11 △김성일15
△박준명12 △이삼희20
◆SGS △김광두3 △김덕우9
△김수근2 △김영구3 △남공락17
△박남식2 △박종영10 △박종인5
△안기석10 △이계식20 △이성오5
△이창근1 △이창섭7
◆APC △장신현3
◆HPM △김웅6 △김복희1
△김운하5 △김재영18 △노동일7
△박천표11 △서관석2 △엄신흠14
△최병용9 △홍성희3
◆AMPP △김종민4 △류귀식7
△신기찬2
◆AIC △구호환15 △김현식2
△송호룡19 △이인기11 △이찬재6
△장낙진13
◆AFB △김정민2 △성태섭1
△이동락1 △장재승4 △정성모3
△최박문1 △홍완표8
◆AMPFRI △김정훈1 △김태형23
△최창혁4
◆ACPMF △김정식3 △박상남3
△박영미1 △박태영2 △이종수1
△정광식2 △정원배3
◆FIP △문재웅5 △최승래6
△황귀봉1

◆GLP △김경식2 △김자빈11
△김재호17 △신극정16 △신명진13
△신용식17 △유상열6 △유영덕7
△윤여표11 △이원욱11 △조좌진17
◆ALP △김재현2 △박영선9
△부봉훈2
◆SPARC △김백형13 △김유정15
△박병근11 △박환우14 △손정우15
△이태식12 △조성원10 △조혜자13
△홍기남5 △황미리아8 △황용규15
◆ASP △오성환6

일 반

◆인문대 △이종은92 △정인호86
◆사회대 △권용진86 △권태훈87
△김대규07 △박지우01 △박찬영01
△박환재03 △방진욱91 △변동희73
△원영준90 △유대준00 △이주현08
△임병일88 △임이랑04 △임지선07
△정규억73 △정기철73 △조동호92
◆자연대 △김대환02 △김미영06
△김영찬06 △김진복78 △빈병준96
△손승민08 △오인록06 △이길영00
△이은진08 △이준현03 △이창규91
△임원중87 △조정구08 △최승주72
◆간호대 △권오겸56 △오현숙83
△이인욱74 △이지숙76
◆경영대 △권영주06 △김기영72
△김두봉86 △김태암82 △안재석87
△안종혁83 △안철환88 △전동진93
◆공대 △고찬99 △고형석85
△김근환86 △김병숙52 △김병제52
△김병호78 △김용태53 △김우진05
△김재경97 △김정래01 △김정일86
△김정현05 △김지은97 △김진만54
△김준현88 △김홍규08 △노성준06
△문석훈02 △박영진71 △박천경52
△박한샘06 △변문현53 △손지호02
△손태희99 △송재규55 △신동엽00
△심정원99 △안재식03 △안태영03
△양창국60 △오효석74 △유환규56
△윤만철62 △이갑연83 △이경선03
△이병길86 △이희발72 △임용규52
△장동근55 △장재명00 △장희익68
△정동식72 △정종호01 △정지욱08
△정진삼65 △정치권60 △정태증48

△조남산63 △조영호67 △조형래58
△진형구63 △채희선69 △최경수48
△최정립53 △하정식04 △한영수65
△한창석68 △홍성철87 △황정수62
◆농대 △고영근78 △김현58
△김명동90 △김무수89 △김재인62
△김학기65 △남영우53 △박동규56
△박명우05 △박상훈55 △박종문64
△박종효58 △박진화57 △박창용55
△박한수82 △백성규02 △백연수61
△서성원93 △송흠03 △신재인56
△유영준59 △윤석용74 △이상화74
△이수장58 △이순혁59 △이원식53
△이운환60 △장성중58 △장구현53
△정민환65 △정선자62 △정재용79
△전정하54 △최규상81 △한기학52
△황제순70
◆문리대 △김지영64 △박정삼63
△배우근59 △백병기60 △서세창53
△손장순54 △안광식49 △윤규호58
△이계원59 △이광수54 △이규증55
△이상택61 △이승훈55 △이양길60
△이정숙57 △이주형65 △전부관66
◆미대 △김미혜78 △김민정01
△송광자62 △조용숙61 △현숙자56
◆법대 △김태형57 △김명중85
△김성룡60 △김영석86 △박승준80
△서광하56 △석광세59 △송세빈81
△송재현60 △심연택71 △심우찬02
△안길용65 △윤덕규57 △이민재72
△이병돈73 △이상희07 △이승환87
△이용남59 △임상현59 △장일86
△정수영53 △최귀인56 △최명의69
△최정은04 △현종찬74 △황경진52
△황영욱59
◆사대 △강순규76 △고경순61
△권광옥54 △김규호55 △김리경08
△김윤경06 △김정웅65 △박동근62
△박성민70 △박천배74 △박현수76
△백기현03 △안예라02 △이광렬56
△이성호58 △이종연63 △장선식59
△정은실74 △최기현06 △한함윤53
◆상대 △김기영53 △김경원58
△김병식68 △박광규56 △설동욱62
△양재국50 △이동수59 △이용기57
△임한석59 △장사일73 △채현석60
△최익재68 △표학길66

◆생활대 △김남미73 △정선영06
◆수익대 △김남식83 △김민영50
△김영목51 △박선규60 △박양기56
△우영제64 △이강훈58 △조광영54
△최창열84 △홍소균01
◆약대 △김계영51 △김용정58
△김재현06 △이강영57 △정진남60
△최문영05 △홍승철53
◆음대 △김유경05 △김정휘05
△김홍박00 △박효경65 △서수민97
△윤원숙62 △이상수01 △이정현97
◆의대 △김영렬96 △류형호06
△백낙형54 △백운집71 △신정엽06
△이근후77 △이의돈61 △이정희01
△이훈용72 △최덕영58 △최동호81
△최현규62
◆치대 △김공배58 △김기흥75
△김정균59 △김현제87 △김효순68
△윤귀성80 △이영훈78 △이재신73
△정호길71 △한종일78 △홍충욱55
◆대학원 △신용목82 △이건수89
△이상엽86 △허찬수72
◆교대원 △정병관69
◆보대원 △박주홍86 △이용성73
△이현영03
◆행대원 △유필우75 △정태언86
◆환대원 △강덕원85 △고성하77
△허원74
◆AMP △김상훈68 △김종길29
△김종철68 △남현일32 △박학경47
△서철봉33 △서호근60 △송문호38
△유시종19 △유재열55 △윤우영26
△이상무40 △이영희30 △이휴원68
△임창건59 △장경남46 △장성훈67
△정동락52 △정원민13 △정원철66
△조승조68
(기타 특별과정 일반회비 납부자
명단은 지면관계로 다음 호에 게재
합니다.)

6 월 계 :	131,820,000원
평생회비 :	98,600,000원
입 회 비 :	930,000원
총 계 :	596,205,940원